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Ⅱ

Overview of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忠淸北道 文化財大觀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Overview of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II

충청북도

忠淸北道 文化財大觀

문화재대관



Overview of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

II

총괄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편찬위원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
김지택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명예교수)
김창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장)
박상일 (청주문화원 원장,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장)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2분과 위원)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1분과 위원)
신호철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한종구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3분과 위원장)

행정지원 정일택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김학규 (충청북도 문화재팀장), 권기윤 (충청북도 학예관), 박미경 (충청북도 학예사)

집필 및 감수
강민식 (청주 백제유물전시관 학예사)
김미선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김인한 (충청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춘실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박봉주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교수)
박은화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손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오선영 (연세대학교 민속학 박사과정)
윤나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보존활용팀장)
이범현 (음성 감곡성당 주임신부)
이상희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이종민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원장)
정제규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조중근 (유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최일성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길경택 (충주박물관 박물관장)
김영덕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교수)
김현길 (한국교통대학교 명예교수)
김형래 (강동대학교 건축과 교수)
박상일 (청주문화원 원장)
박종현 (음성 철박물관 학예사)
서지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심경보 (경기도박물관 학예사)
오종우 (남서울대학교 GIS공학과 교수)
윤순병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이상기 (충주전통문화연구회 회장)
이은주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장인우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장희정 (금강문화관 관장)
정혜수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조혁연 (충청북도 문화재전문위원)
홍재석 (제천시 학예사)

연구단
PM 윤나영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장)
박종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성하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김준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최장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역사문화연구실 보존활용팀 연구원)

영문 번역 (주) 팬트랜스넷 (PM 심윤정 / **번역** 강미란, 양영주 / **감수** Andrew Dutch / **행정** 윤태연)

사진촬영 고형모, 구연길, 김대중, 김정원, 박종선, 박현주, 성하수, 유현덕

항공사진 한빛토목설계공사, 호버엠

3D스캔 테라픽스

사진협조 충청북도, 충주시(충주시청 사진DB), 제천시(제천시청 사진DB), 단양군, 음성군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국립청주박물관,
덕주사, 삼성미술관 리움, 성보문화재연구원, 연세대학교박물관, 음성 감곡성당,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박물관,
한국교통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재)중원문화재연구원, (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김운기, 김인한, 김형래, 안상열, 오종우, 유근자, 조순현, 조중근, 정제규

일러두기

1.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은 충청북도의 지정문화재를 집대성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고, 더불어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련분야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찬하였다.

2.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는 충주시를 비롯하여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291건(2017년 7월 기준)을 수록하였다. 2017년 7월 이후 지정된 신규문화재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Ⅲ』에 수록될 예정이다.

3. 게재순서는 지역-지정종목-지정번호 순으로 하였다.

4. 각 문화재별 내용은 편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집필자를 명시하였다. 또한 문화재의 편년, 용어 등은 기존의 학설과 더불어 집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록하였다.

5. 각 문화재의 사진은 2017년 현황 위주로 수록하였으며, 문화재의 특성에 따라 옛 사진이나 매장문화재 조사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다만 수리 등의 사유로 촬영하지 못한 경우와 옛 사진 등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존 자료를 활용하였다.

6. 각 문화재의 세부항목은 문화재명, 지정구분, 수량/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하였고, 문화재 명칭은 한자와 영문을 병기하였다.

7. 영문 설명은 국문 내용을 축약한 것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42호, 2014.10.17.)에 의거하여 번역을 실시하였다.

8. 문화재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지름, 두께(기본 ㎝) 순으로 19×37×7 등의 형식으로 표기하였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별도 표기하였다. 다만 전적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로×가로의 형식이므로 이에 따라 표기하였다.

9. 『충청북도문화재대관』Ⅲ 권(2018년)에 수록된 신규 지정문화재는 지역별로 재편집하여 수록하였다.

※ 뒷표지의 있는 인장은 명승 제47호 단양 사인암에 새겨져 있는 '獨立不懼 遯世無悶독립불구 둔세무민' 암각자를 도안화한 것이다. "홀로 서니 두려운 것이 없고 세상을 은둔하니 근심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忠淸北道 文化財大觀

발간사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행복도지사 이시종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우리 도에 현존하는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권을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는 예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두 개의 강과 두 개의 산맥이 만나는 이 땅에서 반만년 전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잡았고,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은 이제 문화재가 되어 도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인쇄문화의 발상지 청주,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충주,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 명산명찰의 보은, 향수문화의 옥천, 국악과 예향문화의 영동, 장뜰 들노래의 증평, 천년의 농다리 진천, 화양구곡의 괴산, 설성향토문화의 음성, 단양 8경의 비경을 간직한 단양 등 자랑스런 문화유산이 우리 충북인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충북인의 문화적 자긍심이 오늘날,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의 힘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재가 전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의미를 올바로 바라보며, 후대에 온전히 전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충청북도 내 문화재를 집대성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은 2016년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3권의 책으로 출판됩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Ⅱ』은 충북의 북부권역이라 할 수 있는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총 4개 시군의 문화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남부권역의 문화재를 담은 Ⅲ권을 발행할 계획 입니다.

오늘날 정신문화를 살찌우는 문화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충북인의 지혜와 숨결이 담겨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 문화 선진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지속될 수 없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 역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비로소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이 지역의 정체성을 바로 하며, 동시에 충북 문화재 연구 및 보존 관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편찬 및 집필위원님들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협조기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 12.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축사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는 소중한 씨앗이 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오시고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 발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은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온 역사의 고장답게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의 발간은 매우 뜻깊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며, 문화산업이 현대 사회의 성장동력으로 새롭게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역사가 없는 문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문화의 중심에는 문화유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본 책자에 소개된 유·무형의 문화재는 우리 선조의 숨결과 얼이 고스란이 녹아있는 소중한 자산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지정 문화재를 집대성하여 충실히 조명한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의 한장 한장에서 충북문화재연구원 여러분의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 한 권 들고 우리 고장의 문화재들을 찾아가다 보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역사를 읽으며 과거와 멋진 조우(遭遇)를 하게 될 듯합니다.

다시 한 번 『충청북도문화재대관 Ⅱ』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자, 더 나아가 미래를 여는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2017. 12.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 양 희

서문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재는 꼭 한번쯤 방문하게 됩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중국의 만리장성,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등등, 모두 그 나라와 지역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이며,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만큼 문화재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이자, 역사의 단면이며, 지역의 자긍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도 각 지역을 대표할만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지만,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재가 단순히 고루한 옛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자원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을 편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대관』은 도내 780여 개의 문화재를 집대성하는 자료로, 그동안 쉽게 지나쳤던 우리 지역 문화재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치를 재조명하여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16년 충북의 중부권이라 할 수 있는 청주·증평·진천·괴산 4지역을 담은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Ⅰ권이 발간되었고 올해는 충북의 북부권이라 할 수 있는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지역의 문화재 291건을 담았습니다.

34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진에 참여하였으며, 문화재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한 16,000여 장의 사진 중 엄선된 사진을 수록하여, 명실공히 “충청북도 문화재의 집대성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한 질의 도서를 출판하는 일이지만,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문화재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발간에 참여해주신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 귀중한 자료를 협조하여 주신 관계기관,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및 충청북도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7. 12.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 준 식



목차 目次

일러두기

발간



충주

1. 국보 15
2. 보물 26
3. 사적 50
4. 명승 68
5. 국가무형문화재 73
6. 국가민속문화재 76
7. 등록문화재 86
8.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90
9. 충청북도 기념물 178
10.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26
11.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238



제천

1. 보물 273
2. 명승 292
3. 천연기념물 300
4. 국가민속문화재 302
5. 등록문화재 306
6.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314
7. 충청북도 기념물 402
8.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435
9.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438
10.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443



음성

1. 보물 449
2. 국가민속문화재 460
3. 등록문화재 466
4.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472
5. 충청북도 기념물 500
6.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516
7.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518



단양

1. 국보 527
2. 보물 535
3. 사적 563
4. 명승 574
5. 천연기념물 584
6. 국가민속문화재 594
7.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596
8. 충청북도 기념물 684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698
10.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706
11.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708

참고문헌 710

찾아보기 717




음성
陰城





陰城 음성

청자상감 '상약국'명 음각운룡문합

靑磁象嵌'尙藥局'銘 陰刻雲龍文盒

Celadon Lidded Bowl with Inlaid Inscription of "Sangyakguk (Bureau of Medicine)" and Incised Cloud and Dragon Design

보물

종 목 보물 제646호
수 량 1점
지정일 1978. 12. 07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주)한독약품
시 대 고려시대

청자상감'상약국'명음각운룡문합은 고려시대 왕실 의료기구 중 의약을 담당했던 '상약국尙藥局'의 명칭이 뚜껑과 몸체에 백상감된 청자합이다. 합의 형태는 긴 원통형을 이루며 뚜껑 부분과 합신 부분이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되어 있다. 뚜껑의 측면과 합신의 상부에는 횡서한 '상약국尙藥局' 명칭이 백상감되어 있으며 동일한 글씨체를 보여주고 있다.

글씨와 더불어 이 합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뚜껑 상부의 유약층 밑에서 볼 수 있는 은은한 운룡문이다. 문양은 3개의 발톱[3爪]을 가진 반룡蟠龍이 구름 사이를 헤집으면서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모습을 반양각과 미세한 음각으로 묘사하였다. 비색을 띠는 유약층 속에는 미세한 기포가 꽉 차 있어 신비로운 느낌을 주며 두터운 유층에서는 굵직한 빙열이 확인된다. 굽 안쪽에는 규석을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 있어 이 합이 매우 격조 높은 청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유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청자음각 '상약국'명 운룡문합〉(보물 제1023호)과 일본 야마토분카간[大和文華館] 소장의 〈청자음각 '상약국'명 합〉 등이 있다. 이들 유물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나 문양표현 기법과 크기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이 청자합은 전라남도 강진군의 고려 중기 가마터에서 동일 명문파편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강진에서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상약국은 『고려사高麗史』 권 77 「백관百官」 2 봉의서奉醫署 항목에서 이르기를 '왕이 먹는 약을 담당하였다. 목종穆宗 때에 상약국에 봉어奉御·시어의侍御醫·직장直長·의좌醫佐를 두었고, 문종文宗 때에 관제를 정했으며 충선왕 때 장의서掌醫署로, 공민왕 때 상의국尙衣局에서 봉의서奉醫署로 이름을 바꾸면서 직제를 개편했고, 최종적으로 공양왕 때 전의시典醫寺에 병합되었다'고 되어있다. 고려시대의 의료조직이던 상약국은 1103~1126년 사이에 존속했던 중국 송宋대의 의료관제인 상약국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 유물로는 송대의 정요定窯에서 생산된 '상약국'명 백자들과 요지 조사품들이 존재하고 있어 서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유물은 양식과 정황으로 볼 때 12세기 전반 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려가 송의 제도를 수용하고 고려화高麗化 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종민

This celadon case bears the inscription "Sangyakguk," which is the name of the bureau of medicine during the Goryeo period, on its lid and body, inlaid with white clay. The lid and the body of the long cylindrically-shaped case have the exactly same height. The name "Sangyakguk" is inlaid with white clay along the lateral side of the lid and around the upper area of the body, with the characters written across, in the same calligraphic style.

Its style and other circumstantial evidence suggest a strong likelihood that this celadon case was made sometime in the early 12th century. The item is highly significant as an example showing how Song-dynasty customs and practices imported into Goryeo became gradually modified to attain local flavor.

언해태산집요

諺解胎産集要

Eonhae taesan jibyo (Book of Obstetrics, Korean Translation)

보물

종 목 보물 제1088-2호
수 량 1책
지정일 1991. 12. 16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한독의약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권수

『언해태산집요』는 출산에 관한 증세 및 약방문을 적은 의학서적으로, 1608년(선조 41)에 임금의 건강과 병을 돌보던 어의御醫 허준(許浚, 1546~1615)이 왕명에 의해 1434년(세종 16) 노중례盧重禮가 편찬한 『태산요록胎産要錄』 2권을 개편하여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허준이 편찬한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평시에 「태산집胎産集」·「창진집瘡疹集」·「구급방救急方」이 간행되었으나 난리(임진왜란) 뒤에 모두 없어졌으므로 왕명에 의해 이 3가지 책을 편성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독박물관 소장본인 이 책은 내사본內賜本으로 표지에 '내사內賜'라 묵서되었으나, 현재 내사기內賜記는 없는 상태이다. 체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동일하게 「구사求嗣」, 「잉태孕胎」, 「태맥胎脈」, 「험태驗胎」, 「변남녀법辨男女法」, 「전녀위남법轉女爲男法」, , 「오조惡阻」, 「금기禁忌」, 「장리將理」, 「통치通治」, 「안태安胎」, 「욕산후欲産候」, 「보산保産」, 「반산半産」, 「찰색험태생사察色驗胎生死」, 「하사태下死胎」 등 43개 항목으로 세세히 나뉘어 있으며 각각 증세와 처방이 한문과 언해문으로 나와 있다.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5×17.2㎝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1행 20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6×23㎝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이 책의 처방에 나오는 우리말의 어휘·표기법·한자음 표기 등은 17세기 국어연구에 있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한방漢方 사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제규



Eonhae taesan jibyo (Book of Obstetrics, Korean Translation) is a medical text about childbirth-related complications, providing remedies and prescriptions for a variety of obstetric conditions. The book is based on Volume 2 of *Taesan yorok* (Book of Obstetrics), which was revised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Heo Jun, by the order of the king.

The vocabulary and spelling, and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Chinese characters, found in the various remedies contained in this book, shed rich light on the Korean language as spoken and written in the 17th century. The book is moreover regarded as an in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찬도방론맥결집성 권 1, 3

纂圖方論脉訣集成 券 一, 三

Chando bangnon maekgyeol jipseong (Collection of Essays and Charts on Taking Pulses for Diagnosis)

보물

종 목 보물 제1111호
수 량 2권 2책
지정일 1991. 12. 16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주)한독약품
시 대 조선시대



Chando bangnon maekgyeol jipseong (Collection of Essays and Charts on Taking Pulses for Diagnosis) is a book based on *Chando maekgyeol* (Pulse Taking Method with Charts), which is said to have been compiled by Gao Yangsheng of the Six Dynasties period. The original Chinese medical text was revised by Heo Jun, by the order of King Seonjo, and was published in 1612 (the 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under a new title.

An important text for gauging the state of medical knowledge during the Joseon period, *Chando bangnon maekgyeol jipseong* is believed to have later served as the basis for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by the same author.



권1 권수

『찬도방론맥결집성』은 육조시대六朝時代의 고양생高陽生이 편집하였다는 『찬도맥결纂圖脈訣』을 선조의 명에 의하여 허준許浚이 교정하여 1612년(광해군 4)에 간행한 것이다. 고양생의 『찬도맥결』은 중국의 중세 이전의 저명한 의가醫家인 희범希范·결고潔古·통진자通眞子 등의 맥론脈論을 모아 편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독박물관 소장본인 『찬도방론맥결집성』은 「진맥입식診脈入式」으로 시작하여 「오장육부五臟六腑」·「심장心臟」 등 29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3×15.8㎝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0행 18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내향삼엽화문어미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3.2×21㎝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간기 부분은 결락되어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존하는 목판본에 남아 있는 '만력구년신사오월 일통훈대부행내의원첨정신허준배수계수근발萬曆九年辛巳五月 日通訓大夫行內醫院僉正臣許浚拜手稽首謹跋', '만력사십년규십일월 일내의원봉교개간, 감교관 통훈대부행내의원첨정신리희헌, 통훈대부행내의원직장신윤지징萬曆四十年閏十一月 日內醫院奉敎開刊, 監校官 通訓大夫行內醫院僉正 臣李希憲, 通訓大夫行內醫院直長臣尹知徵'의 기문을 통해 원래 허준이 교정을 완료하고 발문跋文을 쓴 것은 1581년(선조 14)이었으며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1612년(광해군 4)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의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이후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저술하는데 기본이 되었던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제규

의방유취 권 201

醫方類聚 券二百一

Uibang yuchwi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보물

종 목 보물 제1234호
수 량 1권 1책
지정일 1996. 01. 19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주)한독약품
시 대 조선시대

『의방유취』는 한방 의학의 지식 내지 서적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다.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이 집현전부교리集賢展副校理 김례몽金禮蒙과 저작랑著作郎 유성원柳誠源등에게 명하여 의방醫方을 수집·편찬하게 하고 뒤에 다시 신석조辛碩祖·김수온金守溫등에게 명하여 의관醫官 진순의陳循義등을 모아 편찬케 하였다. 이후 안평대군 용瑢, 도승지 이사철李思哲등에게 감수케 하여 3년만인 1445년(세종 27) 10월 완성하였다. 총 365권으로, 그 내용은 91문으로 나누어 각문各門에서는 먼저 그 문門에 해당하는 병론病論을 들고 다음에 의방醫方들을 출전出典의 연대순에 따라 열기列記하였다. 글의 인용에서도 책들의 연대 선후先後와 문자의 중출重出및 이동異同에 따라 그 아래에 일일이 주註를 기록하여 각 책들의 원문을 그대로 질서정연하게 종류별로 모아 편입編入하였다.

세조 때에는 워낙 거질巨帙이어서 곧바로 간행되지는 못하고 잠시 간요簡要한 방서方書로서 부문별로 나누어 강습케 했으며, 수차 교정·정리를 거쳐 266권 264책으로 편성되어 1447년(성종 8)에 한계희韓繼禧·임원준任元濬 등이 30부를 인출하였다. 인출된 책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없어지고 12책이 없는 252책의 1질이 왜장倭將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에게 약탈되었다. 이후 일본 궁내청宮內廳 도서료圖書寮에 보관되어 있던 현존 유일의 초인본初印本을 일본 의관醫官 기타무라 나오히로[喜多村直寬]가 1852년(철종 3) 강호江戶서 축각縮刻하여 재간하였다.

한독박물관 소장본 『의방유취』는 제 201권 1책의 영본零本으로 을해자본이다. 수록된 내용은 「양성문養性門」이며, 「보단요결寶丹要訣」, 「주씨집험방朱氏集驗方」, 「왕씨집험방王氏集驗方」, 「수친양로서壽親養老書」, 「사림광기事林廣記」, 「산거사요山居四要」등 여섯 의방을 전재轉載하였다.

「보단요결」에는 난경술鸞鏡術·작수정침술作水精枕術등 37항, 「주씨집험방」에는 진상자양생眞常子養生·손진인양생명孫眞人養生銘 등 29항, 「왕씨집험방」에는 의설醫說 1항, 「수친양로서」에는 태상옥축육자기太上玉軸六字氣·보양保養 등 2항, 「사림광기」에는 수진요결修眞要訣·방환보익防患補益 등 13항, 「산거사요」에는 섭생지요攝生之要의 기거격언起居格言·기거지의起居之宜, 양생지요養生之要의 음식지의飮食之宜·양생지법養生之法·치심治心 등 5항이 수록되었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6×14.8㎝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9행 17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0×18.8㎝이며 판심제는 '유취類聚'이다. 69장張 이하 가운데 부분이 파손되어 보수하였다.

이 자료는 비록 1권이기는 하나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유일본의 초판본이란 점에서 의약서 인쇄문화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제규



권수



Uibang yuchwi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is a medical encyclopedia published during the Joseon period, containing a comprehensive body of medical knowledge and literature. *Uibang yuchwi* in the collection of the Ha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macy is Fascicle 1 of Volume 201 of the 266 total volumes making up this vast compendium. Although only one of the many volumes of this book, this copy is of inestimable value as the sole surviving example of the first edition and is considered highly significant for the printing history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texts.

향약제생집성방 권4~5

鄕藥濟生集成方 券 四~五

Hyangyak jesaeng jipseongbang (Collection of Native Prescriptions for Saving Lives)

보물

종 목 보물 제1235호
수 량 2권 1책
지정일 1996. 01. 19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주)한독약품
시 대 조선시대



권5 권수

Hyangyak jesaeng jipseongbang (Collection of Native Prescriptions for Saving Lives) is a pharmacopeia which was compiled in 1398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King Taejo of Joseon) and was published one year later, in 1399. The book, made up of thirty volumes, also contains *Umauibang* (Remedies and Prescriptions for Cattle and Horses) in its appendix section. *Hyangyak jesaeng jipseongbang* in the collection of the Ha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macy is the incomplete version consisting only of the fourth and fifth volumes. Although missing some parts of the text, the condition of the print is fairly decent overall.

『향약제생집성방』은 조선 초기의 명신名臣이며 의학자인 김희선(金希善, ?~1408) 등이 수집한 고려의 『삼화자향약방三和子鄕藥方』과 조선 초 권중화(權仲和, 1322~1408)가 서찬徐贊에게 명하여 편찬케 한 『향약간이방鄕藥簡易方』을 중심으로, 권중화·김희선 등이 우리나라의 종래 의료경험 및 의서들을 참고 또는 채집·보완하여 제생원濟生院에서 1398년(태조 7)에 편찬하고 이듬해에 김희선이 강원도관찰사 신분으로 강원감영江原監營에서 간행한 의약서로서 총 30권이며 뒤에 『우마의방牛馬醫方』을 덧붙였다.


심장통

권근權近의 문집인 『양촌집陽村集』 권17에 수록된 「향약제생집성방서」에 의하면 이 책은 338종의 질병의 증상과 2,803종의 약방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당시의 의료경험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다음, 약방문을 질병의 부문별로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설명을 하고 있다.

김희선은 조선 초의 문신으로서 1392년(태조 1) 호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전라도 안렴사로 있으면서 전국 각 도에 의학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던 인물이다. 의학에 정통하여 중요한 의학서적들을 저술하였는데 편저로는 『향약제생집성방』·『우마의방』 등이 있다. 또한 권중화는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서 1353년(공민왕 2)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우·좌부대언右左副代言을 거쳐 지신사知申事로 전선銓選을 담당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1393년(태조 2)에 삼사좌복야로서 영서운관사領書雲觀事를 겸임하면서, 새 도읍지 한양의 종묘·사직·궁전·조시朝市의 형세도形勢圖를 올렸고, 1404년(태종 4) 우의정이 되었다가 영의정부사가 된 뒤 사직하였다. 의학에 정통해 『삼화자향약방』이 너무 간요하다 하여 서찬徐贊 등과 함께 다시 『향약간이방』을 편집하였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0.4×13.6㎝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주쌍행註雙行에 판심제版心題는 '향방鄕方'이다. 전체 크기는 29.6×16.8㎝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총 30권 중 제4~5권의 영본零本인데, 권4는 44장 중 전부 1~9장까지 9장, 권5는 44장 중 41~44장까지 4장이 결락缺落되었으며 권4는 12행 24자, 권5는 12행 22자로 판식版式 및 자수字數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 『향약제생집성방』은 1433년(세종 15)에 간행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 기초가 되었고, 특히 한국에서 자생하는 약초로 우리의 풍토와 체질에 맞는 향약을 개발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다.

정제규

구급간이방 권6

救急簡易方 券 六

Gugeup ganibang (Prescriptions for Emergency Treatment)

보물

종 목 보물 제1236-1호
수 량 1책
지정일 1996. 01. 19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주)한독약품
시 대 조선시대



『구급간이방』은 구급救急의 의방醫方을 집성한 민간용 한의서漢醫書로 1489년(성종 20) 윤호尹壕·임원준任元濬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여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성종실록成宗實錄』 20년(1494) 5월 정해丁亥(30일)조條에 "윤호 등이 신찬 구급간이방新撰救急簡易方 9권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있으나, 「구급간이방서」에는 "모두 8권이며 127문門이다"라고 하였으며 이 책의 목록에도 8권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본래 의약서로서 백과대사전격인 『의방유취醫方類聚』가 있었고, 간결하게 정리한 책으로는 『향약제생방鄕藥濟生方』, 『구급방救急方』등이 있었으나 정밀하지 못하고 요약이 적당하지 못하여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 성종은 즉위 후 이를 보완하여 민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의서醫書의 편찬을 구상, 준비하였다가 1489년(성종 20)에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 영돈녕領敦寧 윤호尹壕등에게 편찬하게 하여 이를 감수하고 또 한글로 국역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편찬하였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 21×14.5㎝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8행 17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0.5×18.5㎝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판심제版心題는 '간이방簡易方'이며 권6 1책으로 앞부분 5장, 뒷부분 1장이 결락缺落되어 복사해 보수補修하였다. 이 책은 을해자본乙亥子本의 복각본覆刻本으로 전질이 현존하지 않는 희귀본으로 평가된다. 현재 권1은 일사문고, 권2는 김영탁 씨, 권3권은 동국대, 권7권은 김완섭 씨가 각각 수장收藏하고 있고, 권6은 이 책과 통문관通文館 이겸로 씨 소장본 등 모두 5권이 전한다.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구급간이방』은 희귀한 언해본諺解本 의약서로서 의약서 인쇄문화사 연구는 물론, 우리 국어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정제규

Gugeup ganibang (Prescriptions for Emergency Treatment) is a collection of various types of emergency medical care that can be administered at home. This book, compiled in 1489 (the 20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gjong of Joseon), was printed using woodblocks.

The copy in the collection of the Ha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macy is Fascicle 1 of the sixth volume of a woodblock-printed edition of *Gugeup ganibang*, which was based on an earlier movable type edition, printed using the Eulhaeja typeface. In the absence of a complete version of *Gugeup ganibang*, this book, although missing five sheets at the beginning and one at the end, is highly valued as a rare surviving example. Moreover, as a medical text translated into Korean, this book holds great significance for Korean linguistics research as well as for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medical publications.

음성 잿말 고택

陰城 잿말 古宅

Jaenmal Historic House, Eumseong

국가민속문화재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1호
수량 | 면적 1곽 | 5,433㎡
지정일 1984. 01. 14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안길 47-19
소유자 김주태
시 대 조선시대

음성 잿말 고택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가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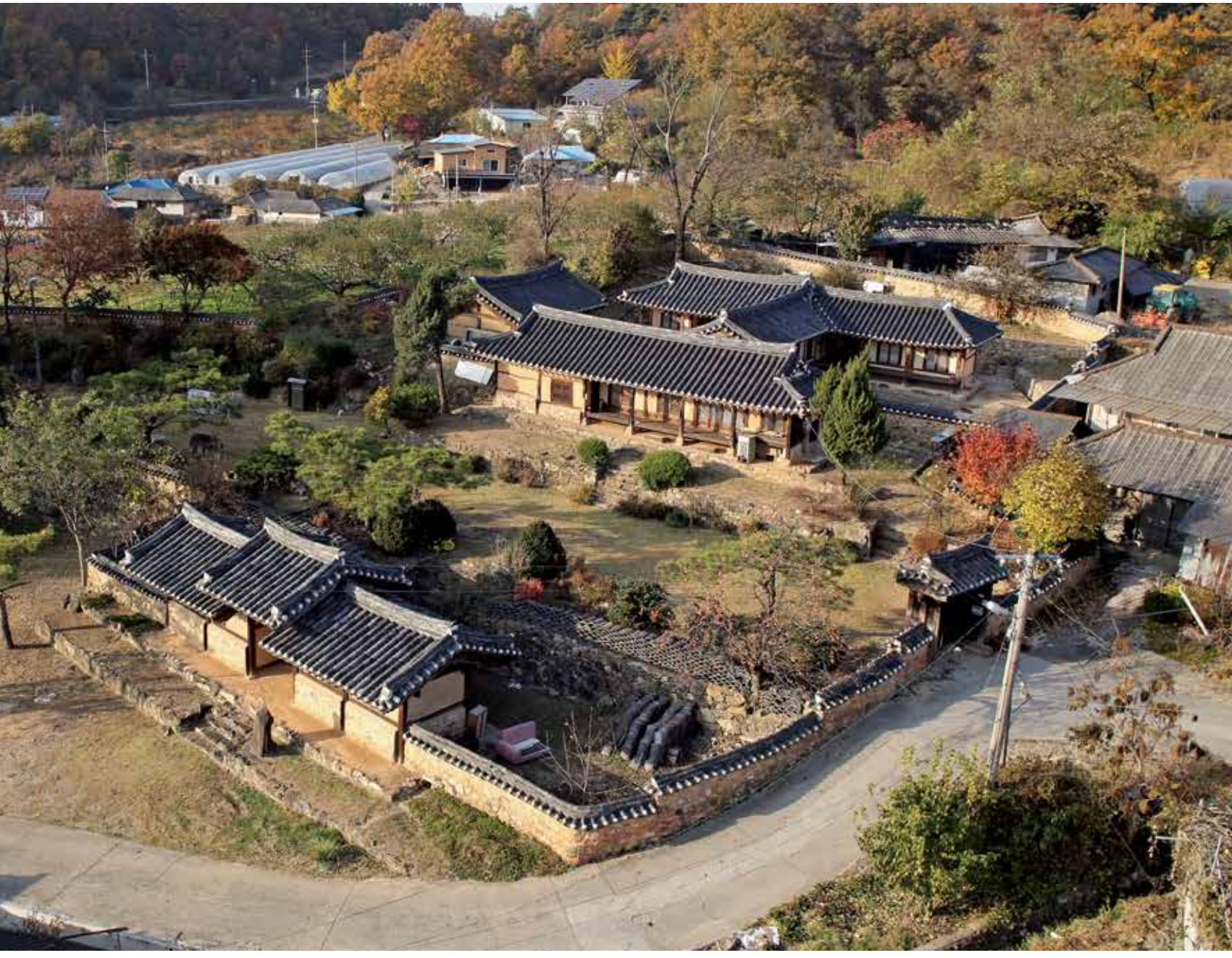
조선 중기의 무신인 이수일(李守一, 1554~1632)의 아들 이완(李浣, 1602~1674)의 생가라는 설과, 3백여 년 전에 이익이 세웠다는 설이 전해지나 근거 자료가 없어 정확한 건립시기 등은 알 수 없다. 마을에서 충주목사를 역임한 참판 박규희朴珪熙 가문이 오랫동안 거주하여 박참판댁으로도 불리고 있다.

사랑채의 상량문에 적힌 '대한광무오년신축이월초칠일신시상량大韓光武五年辛丑二月初七日申時上樑'이라는 묵서명으로 보아 1901년(고종 5)에 조영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안채는 가구의 기법이 고식古式을 보이고 있어 건축 연대는 19세기 중엽 이전의 건물로 추정할 수 있다.

고택의 배치는 넓게 개방된 사랑마당의 높은 기단 위에 一자형의 사랑채가 자리하고 그 뒤로 ㄱ자형의 안채에 면해서 담장으로 둘러싸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복도와 같은 공간이 생기고 있다. 안채 샛담과 사랑채 사이에 형성된 공간은 좁고 긴 사이마당으로 채 간의 연결과 분리가 유기적으로 되도록 하며 출입동선에도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사랑채 앞에는 넓은 사랑마당이 있고 아랫단에는 솟을대문을 설치하고 있다. 안채는 ㄱ자형을 이루어 서쪽에 안마당과 동쪽의 옆마당 그리고 뒤쪽의 화계[花階, 살림집이나 궁궐 절 등의 집 뜰에서 층계모양으로 단段을 만들고 거기에 꽃을 심어 계단처럼 만든 시설 또는 꽃을 심기 위해 뜰 한쪽에 흙을 조금 높이 쌓은 곳]를 나누고 있다. 동쪽의 옆마당에는 남쪽으로 장독대를 배치하고, 안마당의 서쪽에는 광채가 자리하고 있다.

안채의 평면은 ㄱ자형에 一자형을 부가한 ㄱ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ㄱ자형은 일반적으로 중부지방에 보이는 형식으로 남쪽부터 부엌 2칸, 안방 2칸, 웃방 왼쪽으로 꺾어져서 대청, 건넌방으로 이어지고 一자형은 웃방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대청, 방,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자형으로 부가한 채는 자연스럽게 별당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있다. 건넌방 앞에는 높은 마루를 설치하였고 하부에는 함실아궁이를 설치하였다. 안방의 양측면에는 쪽마루를 부설하고 있고, 대청은 넓게 조성하고 높은 마루와 쪽마루가 연계되고 있다. 一자형으로 부가한 채도 작은 대청이 중심이 되어 각 방 앞에 전퇴와 안방 측면의 쪽마루와도 연계되고 있다. 가구는 ㄱ자형 몸채는 1고주5량가이고 날개채는 맞걸이 3량가이며, 대청은 납도리 긴보5량가이다. 一자형으로 부가한 채는 1고주5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이고 ㄱ자형 몸채는 팔작지붕이며 날개채는 맞배지붕, 一자형으로 부가한 채는 우진각지붕이다.

사랑채는 정면 6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사랑마당에 2단의 자연석 석축을 쌓아 그 위에 높게 자리하고 있다. 아랫단은 화계로 조성하여 사랑채에서 부감俯瞰하는 경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면은 서쪽부터 문간, 부엌과 고방, 아랫사랑방, 웃사랑방, 사랑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문간은 서쪽으로 문을 설치하여 안채로 들어갈







사랑채

때 꺾어 들어가도록 구성하고 있다. 서쪽에서 두 번째 칸은 앞뒤로 나누어 앞에는 고방으로 꾸미고 뒤에는 아궁이를 설치한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음성 잿말 고택은 이 지역 사대부가의 품격을 지니고 있고, 공간의 짜임새가 인상적인 전형적인 전통주거 형식을 하고 있다. 안채는 ㄱ자형에 一자형을 부가한 ㄱ자형을 이루면서 공간이 분화되고 뒷채가 강조되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어 안채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형성된 긴 복도 형식의 공간은 전체 공간구성에서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손태진

This private house of a local noble family was built in the late Joseon period in Yeongsan-ri, Gamgok-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according to a well-arranged spatial design. The "ㄱ"-shaped *anchae* (women's quarters) is characterized by segmented spaces and a spatial layout focusing on the rear part. The long corridor linking the anchae with the *sarangchae* (men's quarters) also serves as a dividing line between them.



陰城 음성

음성 공산정 고택

陰城 公山亭 古宅

Gongsanjeong Historic House, Eumseong

국가민속문화재

종 목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
수량 | 면적 1필지 | 1,070㎡
지정일 1984. 01. 14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55번길 19-4
소유자 김옥녀
시 대 조선시대



음성 공산정 고택은 조선말기의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에 있는 조선 후기의 가옥이다.

안채 상량문에 적힌 '단군기원후사이오칠년갑자년칠월檀君紀元後四二五七年甲子年七月'의 묵서명으로 보아 1924년에 중수된 것으로 보이며, 처음 지은 시기는 이보다 앞선 19세기 중반 또는 그 이전으로 추정된다. 사랑채와 문간채의 건립연대는 1924년에 중수할 당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헛간채 등의 부속건물은 최근에 지은 것이다.

고택의 배치는 ㄱ자형의 안채를 두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대각선 맞은편 앞에 一자형의 사랑채를 배치하였으며, 사랑채의 오른쪽에 행랑채를 덧붙여 곱은자집을 이루고 왼쪽으로 一자형의 문간채가 전체적으로 튼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ㄱ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중부지방 방식으로 남쪽부터 부엌, 안방, 웃방을 배열하고 꺾어져서 2칸 대청, 건넌방을 두고 있다. 안채는 웃방, 대청, 건넌방을 몸채로 하여 남향하고 안방, 부엌을 날개채로 하고 있다. 몸채는 전퇴로 하고 날개채는 후퇴로 하여 구성하고 있다. 건넌방 앞에는 전퇴를 두고 옆으로 반 칸을 설치하여 높은 마루와 함실부엌을 두고 있다. 건넌방 앞에 높은 마루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형식과 달리 전퇴와 높은 마루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대청은 긴보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사랑채는 1924년 중수 당시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ㄴ자형의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서쪽부터 부엌, 아랫사랑방, 윗사랑방, 대청 꺾어져서 방, 대문간, 2칸 곳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문간과 함께 시설된 것을 보면 이 지역의 일반 농가의 형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2칸 곳간은 2칸 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문간 쪽으로 벽장과 다락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안방에는 벽장과 다락이, 하부에는 부엌이 설치되었다. 사랑채의 몸채는 납도리 1고주5량가이고 날개채는 납도리 맞걸이 3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음성 공산정 고택은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소박한 민가 건축의 생활상과 풍취를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안채



사랑채

This private house in Yeongsan-ri, Gamgok-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dates back to the late Joseon period. The content of the *sangnyangmun* (an inscription made on the ridge beam of a newly built building) in the *anchae* (women's quarters) states that the house was repaired in 1924, leading historians to conclude that it was originally built in the mid-nineteenth century or earlier.

The house preserves traces of the simple life style of an ordinary family.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

國家標準 度量衡 遺物

National Standard Measuring Instruments

등록문화재

종 목 등록문화재 제320호
수 량 236건 549점
지정일 2006. 12. 04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박물관
소유자 국가기술표준원



킬로그램(No.39)

도량형은 사물을 계량하고, 물건을 비교·교환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길이를 재는 도度, 부피를 측정하는 량量, 무게를 다는 형衡은 공동생활에서 물물교환이나 거래 시 널리 사용해 온 방식이다.

이러한 도량형기는 인간만이 사용하는 문명사회의 이기利器로, 그 역사는 인류 출현과 함께 하였을 정도로 매우 오래되었다. 오늘날처럼 정형화된 도량형기가 나오기 이전에 인류는 키나 팔,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길이를 재고,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해 왔다. 우리말의 한뼘·한발·한길·한줌·한웅큼·한아름 등이 바로 그러한 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내에 있는 계량박물관은 1905년 '법률 제1호'인 '도량형법'의 시행 증거물들로 우리나라 도량형 제도의 근대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근대도량형기'를 포함하여 이 도량형기를 검사하거나 단속에 사용하던 '국가표준 도량형기'들을 전시하고 있다.

유물은 1902년(고종 39)에 설치되어 도량형 업무를 소관하였던 평식원平式院에서 사용했던 것과 일제강점기에 사용하던 유물을 민간으로부터 기증받은 것들이다. 계량박물관 내 전시된 549점의 유물들은 희소성과 사료적 가치가 높아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로 일괄 지정되었다.



곧은자



직각자



금속제 가로긴 표준 되

유물 중에는 조선 시대에 우시장 등에서 가축을 사고 팔 때 사용하였던 '소머리 가지자'가 있다. 당시에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없어 소머리 가지자로 소, 말, 돼지 등 가축의 머리를 측정하여 가격을 정하였다.

또한 8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대帶저울도 여러 종류 전시되어 있다. 대저울은 저울대에 눈금을 매기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 추를 움직여 평형을 이루었을 때 무게를 알아내는 저울이다. 약재나 금·은 등의 가벼운 무게부터 곡물·야채 등과 같은 생활용품, 쌀가마·보리가마·돼지 등 무거운 물건까지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도량형기는 1964년 미터법의 도입과 전자저울의 등장으로 사라지고, '도량형'이란 표현도 '계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오늘날 발전된 계량기를 비롯한 첨단 측정기기의 등장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도량형기와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고 산업표준화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을 통해 우리의 계량문화 근대사에서 생활과 함께 한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기술발전의 이해와 근대사를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혜수

The Korean Metrology Museum located within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in Eumseong, Chungcheongbuk-do displays 549 relics including early-modern measuring instruments that represent the history of change in the system of weights and measures in Korea, national standard measuring instruments that were used in the inspection and regulation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and related documents.

These valuable relics will help visitors understand how measuring instruments developed in the early modern history of the country.

전기로

電氣爐

Electric Furnace

등록문화재

종 목 등록문화재 제556호
수 량 1건 8점
지정일 2013. 08. 27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360 철박물관
소유자 철박물관
시 대 현대

전기로는 전열電熱을 이용하여 고철(Scrap)을 용해시켜 강(鋼, Steel)을 얻는 노爐를 말한다. 가열 방식에 따라서 저항로, 아크로, 유도로, 전자빔로 등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전기로라고 하면 아크로(Electric arc furnace)[흑연 전극과 고철 사이에 아크 방전을 발생시켜 그 열로 고철을 용해시키는 방식의 노]를 말한다.

철박물관에 전시 중인 15톤 전기로도 아크로이다. 이 아크 전기로 외에 제강 부속 시설인 대형 파쇄추, 전기 마그넷(Electric magnet), 레이들(Ladle), 슬래그 박스(Slag box), 후크(Hook), 턴디쉬(Tundish), 몰드 튜브(Mold tube)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재鐵鋼材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당시 동국제강은 철광석이 부족한 한국에서 전로[轉爐 : 고로高爐에서 생산된, 용융 상태의 선철을 용융된 강으로 만드는 제강로]에 의한 철강 제품의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우라야마(URAYAMA) 회사에서 제조한 15톤 아크 전기로를 부산시 용호동 제강소에 설치하여 1966년 10월 4일부터 가동하였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15톤 전기로는 1980년까지 약 140만 톤의 철강재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경부선을 60번이나 놓을 수 있는 양이다.

15톤 아크 전기로는 전기로 몸체 및 뚜껑, 회전 테이블, 천정 개폐 장치 및 전극 승강 장치, 그리고 작업대 및 축 기울기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몸체의 외부는 철판으로 덮여 있고, 내부는 내화물이 부착되었으나 지금은 뚜껑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실되었다. 회전 테이블에는 천정 개폐 장치와 3개의 전극 승강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테이블이 회전하면서 전기로가 열리게 된다. 그리고 전극 승강 장치는 탄소봉(Carbon rod), 구리로 제작된 전극 파지기(Carbon holder), 탄소봉을 움직이는 마스터(Master) 및 마스터 암(Master ar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크의 세기에 따라 탄소봉의 높이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한편 작업대와 연결된 기울기 장치는 교류 모터와 2개의 대형 기어에 의하여 몸체에 부착된 조업구 쪽으로 전기로를 5~10° 기울게 하여 슬래그를 제거하도록 하고, 출강구 쪽으로 13~15° 기울게 하여 용융된 강이 배출되도록 한다.

15톤 전기로는 제강 작업의 일련 설비와 함께 1998년 1월에 철박물관으로 이전·복원되었는데, 당시 비용상의 문제로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하지는 못하였다. 이 전기로는 1960년대 전기로 제강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산업 자료로서, 40~70톤의 전기로가 주를 이루게 되는 1980년대 제강 산업 성장기로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사용된 전기로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산업사적 가치가 높다.

박종현





고철



마그네트



슬래그 박스



대형파쇄추



후크



레이들

The 15-ton electric arc furnace exhibited at the Iron Museum is credited with opening the era of electric arc furnace steelmaking in Korea in the 1960s. It served as the bridge to the country's period of growth in steelmaking industry in the 1980s, when 40-70 ton electric furnaces became essential elements of the industry. As the country's first imported 15-ton electric furnace, it produced a combined total of 1.4 million tons of steel goods by 1980 - sufficient to make a railroad 60 times longer than the Gyeongbu Line connecting Seoul with Busan. It was designated as Registered Cultural Heritage No. 556 in recognition of its place in the country's industrial history.

陰城 음성

음성 읍내리 오층모전석탑

陰城 邑內里 五層模塼石塔

Five-story Stone Brick Pagoda in Eumnae-ri,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9호
수 량 1기
지정일 1975. 08. 20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0-7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This five-story stone brick pagoda is located in the open-air exhibition area of the Eumseong-gun Folk Museum. Little is known about the origin of the pagoda except that it dates back to the Goryeo period (918~1392).

It is both a rare example of a stone brick structure and an important material for study of the local heritage of stone pagodas and Buddhist art in the Chungbuk area.

음성군 향토자료전시관 야외 전시장에 위치한 고려시대 석탑이다.


1921년

이 석탑은 본래 음성읍 읍내리 교동 마을의 음성향교 앞 도로 건너편 절터에 있던 것으로서 1946년에 수봉초등학교 교정에 옮겨 놓았다가 1995년에 향토전시관이 개관하면서 이곳으로 이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모전석탑模塼石塔이란 말 그대로 벽돌탑을 모방하여 만든 돌탑으로, 경주 분황사 석탑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고려시대까지 일부 지역에서 유행하였던 석탑의 한 양식이다.

이 석탑의 원 사지寺址에 대해서는 문헌기록과 조사자료가 없으며 탑 주변은 현재 경작지로 변해 흔적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1942년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높이 12척의 6중 석탑으로 연꽃이 조각되었는데 조각의 정교함이 극치이다"라고 하여 이 석탑을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석탑의 어디에도 연꽃무늬가 보이지 않아 잘못된 기록으로 보인다.

현재의 오층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부塔身部가 있는데 2·5층의 몸돌과 상륜부相輪部 전체가 결실되어 있어 완전한 형태가 아니다. 단층으로 이루어진 기단은 2개의 돌을 다듬어 방형의 지대석을 결구하고 윗면에 호형弧形과 각형角形의 낮은 받침을 마련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1층 몸돌에는 각 면의 중앙에 장방형의 감실龕室을 파내었는데 그 가장자리에 아무런 장치나 조각이 없고 좌우측 우주隅柱도 표현되지 않았다. 2층 이상의 몸돌 각 면에도 우주를 모각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양식은 전탑을 철저하게 모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층 몸돌에는 해체 복원할 당시 직경 9㎝, 깊이 10㎝의 구멍이 확인되었다고 전하며, 이는 사리장치를 봉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 층의 옥개석은 모두 낙수면이 층단을 이루도록 처리하여 전탑의 형태를 취하였다. 초층 옥개석은 2개의 판석을 중첩해 놓았는데 층급받침이 3단으로 각출된 1매석 위에 다른 1매석을 얹어 놓았으며 낙수면의 층단은 3단으로 되어 있다. 2층 이상의 옥개석은 모두 1매석으로 되어 있고, 2·3층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3단이며 낙수면의 층단도 3단씩이다. 4층 옥개석은 층급받침과 낙수면 층단이 2단이며, 5층 옥개석은 층급받침이 2단이고 낙수면은 층단이 없이 일반형 석탑처럼 경사지붕을 이루었다. 윗면에는 찰주擦柱를 꽂았던 둥근 구멍이 있으나 그 위의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어 형태를 알 수 없다.

각 옥개석의 전각부에는 풍경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 4층 옥개석에는 철편까지 남아 있다. 이 탑은 전탑의 외부 형태를 석탑으로 구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석탑 변천사와 충북지역의 불교미술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박상일

음성향교

陰城鄕校

Eumseonghyanggyo Local Confucian School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04호
수 량 일곽(5동)
지정일 1981. 12. 26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23
소유자 충청북도향교재단
시 대 조선시대



음성향교는 유학자에 제사지내고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세운 조선시대 관학교육기관이다.

1560년(명종 14) 음성현 석인동에 창건된 음성향교는 임진왜란 이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1651년(효종 2)에 명륜당을 중수하였고, 1870년(고종 7년)과 1887년(고종 24)에 수리하였으며 이후 1970년에 명륜당과 내삼문을 보수하는 등 여러 번의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대성전, 동재, 서재, 명륜당 등이 남아있다.

음성향교는 앞쪽에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가 있는 강학공간을 배치하고 뒤쪽에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을 따르고 있다. 강학공간은 명륜당이 앞에 있고, 뒤에 안마당을 두고 동재와 서재가 배치된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를 하고 있다.



대성전



명륜당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지형에 따라 높은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두었으며 이익공 공포를 놓고 있다. 구조는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도리와 종보를 결구하고 다시 종보 위에 장혀 받친 상중도리와 장혀 받친 종도리를 설치한 1고주7량가이다. 지붕은 겹처마, 육은 풍판을 설치한 맞배지붕이다. 대성전에는 5성과 송조4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모시고 매년 봄 음력 2월·가을 8월의 상정일에 석전제를 지내고 있다. 대성전은 자연스런 보·충량 등의 구조와 재료 등에서 격식을 갖춘 특징을 볼 수 있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에 양쪽으로 반 칸씩 낸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세 칸은 대청이고 양쪽에 방 1칸씩을 배치하고 바깥쪽에 아궁이가 있는 반 칸을 부설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자연석초석을 놓아 두리기둥을 세웠고 공포는 운문으로 초각한 몰익공이다. 기둥머리에 보를 건너지르고 동자주를 세워 장혀 받친 중도리와 종보를 결구하고 그 위에 화반동자를 세워 장혀 받친 종도리를 올리고 있는 굴도리 긴보5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고 측면은 눈썹지붕이다.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이 기숙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동재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고,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음성향교는 전학후묘의 일반적인 배치형식을 따르면서 경사진 지형의 조건에 따라 단을 형성하여 전당후재의 배치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성전과 명륜당은 자연스런 부재의 특성을 살린 재료와 구조 등에서 격식을 갖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Eumseonghyanggyo in Eumnae-ri, Eumseo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was a state-run Confucian school that also served as a shrine for the holding of sacrificial rites to deceased Confucian saints during the Joseon period. As with other *hyanggyo*, this school follows the traditional layout in which the Myeongnyundang Lecture Hall was situated in front of Daeseongjeon Shrine, which is placed on a tiered site to fit the topographical conditions. Myeongnyundang Lecture Hall and Daeseongjeon Shrine were built with materials whose natural characteristics have been preserved, and appear to adhere to structural formality.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

陰城 邑內里 三層石塔

Three-story Stone Pagoda in Eumnae-ri,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29호
수 량 1기
지정일 1982. 12. 17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17-2
소유자 국유
시 대 고려시대



이 탑은 음성군 읍내리 설성공원 내에 위치한 고려시대 석탑이다. 본래 음성 읍내 동쪽 외곽의 평곡리 탑정마을의 절터에 있었던 것으로 1934년에 현 위치에 옮겨 세웠다. 이 탑의 원위치인 평곡리 절터에 대한 문헌기록이 없어 언제 창건되고 언제 폐사되었는지 등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1932년에 평곡리 새골 마을에서 '함통6년咸通六年'이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대략 통일신라 경문왕景文王 5년에 해당되는 865년경에는 절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 절터에 음성향교가 위치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므로 대략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에 폐사된 후 그 자리에 향교가 세워진 듯하며, 향교가 지금의 위치로 이건된 구한말 이후 경작지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절터에는 석불과 석탑이 남아 있어 일찍부터 사지寺址로 알려져 왔으며, 이 탑으로 말미암아 마을 이름도 예로부터 '탑정이'로 불리어왔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간행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석탑 1개는 4중으로서 높이가 12척이고 기단부의 가로 세로가 각 5척이다'라 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석탑은 단층기단 위에 3층의 탑신부를 갖춘 일반형 석탑으로서 상륜부가 결실되었을 뿐 원래의 조각과 현재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기단부는 1매석으로 된 방형의 지대석 윗면에 높은 각형 받침 1단을 각출하고 면석을 놓았는데 면석에는 우주隅柱만을 모각하였을 뿐 다른 조식은 없다. 그 위에 1매로 된 기단갑석을 놓았다. 갑석에는 부연은 없고 윗면에 각형 1단의 몸돌받침을 마련하였다. 각 층의 몸돌은 모두 1석으로 조성되었으며 각 면에 우주가 모각되었다. 옥개석은 모두 3단씩의 층급받침이 있고 추녀 끝의 낙수홈은 마련되지 않았다. 낙수면이 평박平薄한 편이며 전각轉角의 반전도 경쾌한데 옥개석 윗면에 옥신받침을 1단도 마련하지 않았다. 3층 옥개석의 윗면에는 중앙에 찰주를 꽂기 위한 둥근 구멍이 있으나 이 위에 장식되었던 상륜부는 모두 결실되었다.



1921년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기단부가 단층으로 축소된 점이나 탑신의 각부에서 약식화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조성 시기는 대략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석탑의 현재 높이는 2.4m이며 음성지역에 남아 있는 석탑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박상일

This three-story stone pagoda situated in Seolseong Park in Eumnae-ri, Eumseong-gun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1934 from the temple site in Tapjeong Village, Pyeonggok-ri east of downtown Chungju.

The pagoda, whose current height is 2.4 meters, is presum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Goryeo period (918~1392). It is one of the best preserved stone pagodas remaining in Eumseong.

陰城 음성

음성 미타사 마애여래입상

陰城 彌陀寺 磨崖如來立像

Rock-carved Standing Buddha of Mitasa Temple,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수 량 1구
지정일 1982. 12. 17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61번길 164 미타사
소유자 미타사
시 대 고려시대



This image of Buddha is carved at the center of a rock standing at the entrance to Mitasa Temple in Bisan-ri of Soi-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The Buddha's halo was expressed by incising lines around the body.

The round, benign face, more elaborately depicted face and hands, and the manner of dress characterizing the image suggest that it was produced during the Goryeo period.

음성 미타사 마애여래입상은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에 소재하는 미타사 입구 암벽에 새겨져 있으며, 높이가 4.05m정도 되는 규모가 거대한 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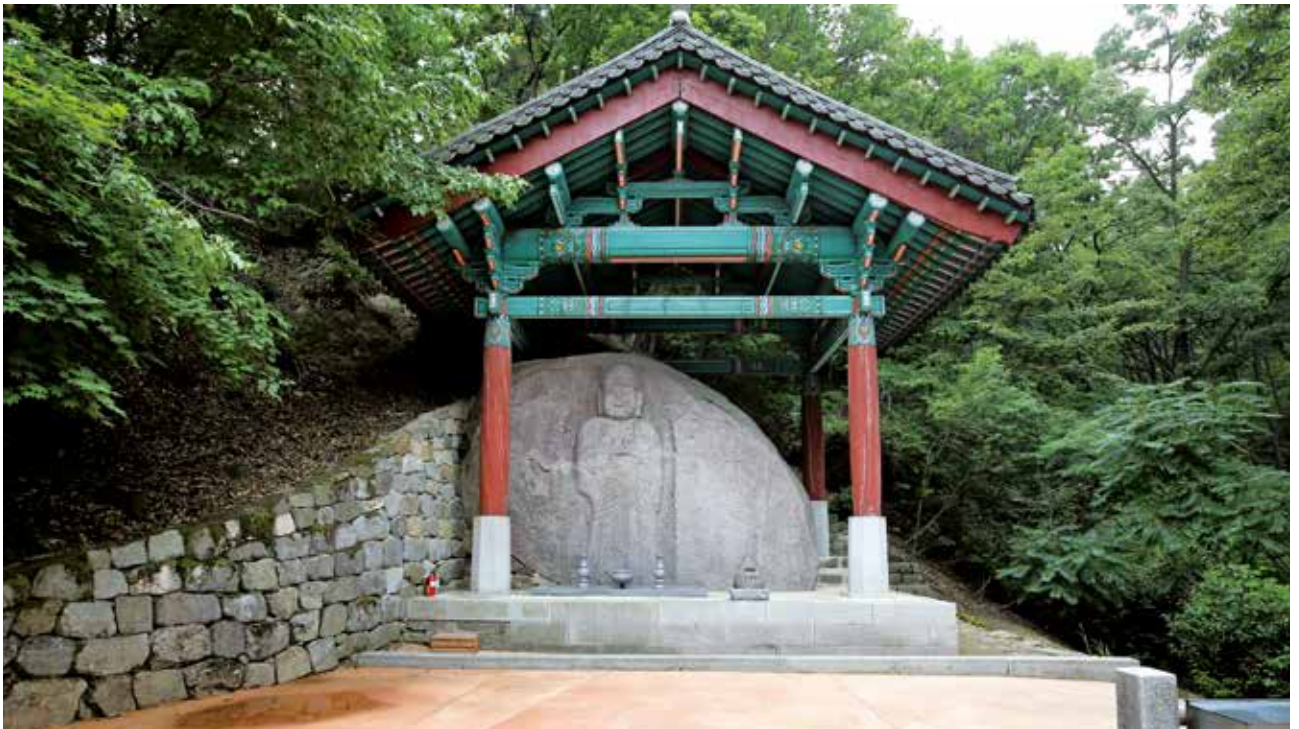
넓은 바위의 가운데 부분을 다듬어 불상을 새겼는데, 광배는 불신 주변에 선을 세로로 촘촘하게 새겨서 나타내었다. 불상의 머리와 상반신은 고부조로 조각되어 입체적이지만 하반신은 저부조이며 얕은 선각으로 간략하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머리 가운데가 뾰족하게 솟아있어 육계와 머리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머리카락은 소발이고 머리와 이마 사이에 턱이 높아서 마치 삿갓모양의 관모冠帽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굴은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넓적하다. 이목구비 중에서 반원을 그리고 있는 눈썹과 넓적한 코는 두드러지는 반면 눈과 입이 많이 마멸되어서 표정이나 인상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깨가 넓은 편으로 불신이 장대해 보이지만 허리나 다리의 윤곽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 둔중해 보인다. 양 손을 들어서 가슴 앞에서 모으고 있지만, 마멸이 심해 세부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손의 위치나 손가락의 흔적을 보았을 때, 엄지와 중지를 서로 맞붙이고 있는 설법인說法印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 어깨 위에 대의가 걸쳐져 있어 통견 방식으로 대의를 착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 방향으로 걸쳐진 옷주름의 표현을 보면, 편단우견 방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왼쪽 어깨에는 편삼을 둘렀을 가능성도 있다. 대의는 V자형으로 가슴을 드러내면서 깊게 파여 있다. 옷주름은 대의 전체가 아니라 허리, 양 손의 소맷자락 등 일부에만 소략하게 표현되었으며 옷주름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표현되었다.

미타사 마애여래입상은 후덕해 보이는 상호의 표현, 얼굴과 손 등 특정부위만 강조한 조각 방식, 대의의 착의형식 등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973년과 1979년의 불사佛事 중 출토된 기와편이나 치미편, 금동불상 등도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려시대에 사찰이 중창될 때 이 마애여래입상도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민



신후재 초상

申厚載 肖像

Portrait of Sin Hu-jae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4호
수량 | 크기 1점 | 85.4×130.5㎝
지정일 1986. 04. 28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소유자 평산신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문신인 신후재(申厚載, 1636~1699)의 초상이다. 신후재의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자는 덕부德夫, 호는 규정葵亭·서암恕菴이다. 1660년(현종 1)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내고 지평持平, 홍문관부교리 등을 거쳐 1679년(숙종 5)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다. 167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삭직되었다가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다시 집권하자 승정원우승지,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689년(숙종 15)에 사은 겸 진 주주청사謝恩 兼 陳奏奏請使의 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강화유수, 개성유수, 한성판윤 등을 지냈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가 일어나 소론이 집권하자 여주에 유배되었다가 1697년 해배되었으며, 이후 충주 오갑장鰲甲庄에 머물며 학문에 전념하다가 여생을 마쳤다.

비단 바탕에 채색을 사용해 그린 이 초상은 사모紗帽를 쓰고 푸른색의 단령團領을 입은 정장관복 차림으로 호피虎皮가 깔린 의자에 앉아 흰색의 홀笏을 들고 있는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左像이다. 오른쪽을 바라보는 팔분면의 얼굴은 배채법을 사용하고 붉은 색의 필선으로 윤곽선과 주름을 묘사하였고 이마와 관골에는 옅은 홍색을 가해 두드러진 부분을 나타내었다. 눈썹과 수염은 가는 먹선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옅은 먹으로 마맛자국을 표현해 사실성을 강조하였다.

조선시대 관복상의 경우 두 손을 공수하거나 앞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초상은 긴 손톱과 손등의 털이 두드러지는 두 손으로 홀을 잡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현존하는 초상화 중 이처럼 두 손을 소매 밖으로 드러내어 홀을 잡은 모습을 그린 예는 1788년에 이모된 고려 전기의 명장 강민첨(姜民瞻, 963~1021)의 반신상(보물 제58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 유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족좌대 위에 평행으로 가지런히 놓인 발 역시 주로 팔자형으로 벌린 발을 묘사한 조선시대 초상화와 다른 점이다. 이들은 주로 중국의 초상화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신후재가 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중국 화가가 그린 초상을 가져왔다고 전해짐으로 이 작품은 중국에서 그려온 초상을 18세기 이후에 이모한 것으로 여겨진다. 삽금대(鈒金帶: 꽃무늬를 조각한 금판장식을 붙인 띠)와 단학흉배單鶴胸背, 목화(木靴: 조선시대에 왕과 문무관리들이 관복을 입을 때 신던 목이 긴 신)에 금니를 사용한 것도 중국 초상화의 영향을 보여준다. 화려한 장식의 팔걸이가 돋보이는 의자의 방향과 신체의 방향이 어긋난 점, 의자의 앞쪽 다리 하나가 족좌대에 걸친 듯 어색한 표현, 상체에 비해 하체가 짧고 빈약하여 전체적인 신체의 비례가 자연스럽지 않는 점은 이모한 화가가 원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작한 결과로 여겨진다.

원래 장황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유소(流蘇: 여러 겹으로 합사한 명주실로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드리운 것으로 악기, 가마, 기旗, 족자 등에 장식용으로 쓰임)가 그대로 남아있어 조선시대 초상화 족자의 원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박은화

This portrait of Sin Hu-jae (1636~1699), a civil official of mid Joseon, painted on silk, depicts the sitter in official robe, seated on a chair covered with a tiger skin. He is wearing the uniform of a court official, including a round-collared blue robe and a black silk hat with a pair of wing-like flaps, and is holding a white audience tablet.



陰城 음성

음성 감곡성당

陰城 甘谷聖堂

Gamgok Catholic Church,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8호
수 량 2동
지정일 1996. 01. 05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성당길 10
소유자 (재)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시 대 일제강점기

음성 감곡성당은 벽돌조의 고딕양식으로 1930년에 지은 성당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위치하고 있다.

청미천 변 매산玫山 언덕 기슭에 민응식閔應植이 명성황후가 다시 장호원에 올 것을 대비해 마련해 둔 99칸 기와집을 임 가밀로 부이용(R. Camillus Bouillon, 한국명 임가미任加彌)신부가 헐값에 사들여 1896년 12월 5일에 한옥건물을 완공하고 사제관 겸 소성당으로 사용하게 된다. 1903년 11월에 한·양 절충식으로 정면 3칸, 측면 10칸의 장방형 삼랑식三廊式 목조한옥 성당인 아랫성당을 신축하였다.

1920년에 신자 수가 늘자 현재의 자리에 성당터를 마련하게 되었고, 1928년에 현 성당 건축공사가 시작되어 1930년 10월 7일에 대성당을 준공하였다. 음성 감곡성당은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시잘레(Chizallet, 한국명 지사원地士元) 신부가 설계를 하고 공사는 프와넬(Poisnel, 한국명 박도행朴道行) 신부가 보내 준 중국인 기술자들이 맡아 진행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장방형 평면에 장변축을 동서 방향으로 두어 주출입구를 서쪽으로 두는 전형적인 고딕성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성당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1934년 지어진 반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조건물로서 매괴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제관이 배치되어 있다.

감곡성당은 건물 총 길이 39.948m, 폭 18.6m, 몸체 높이 12.75m, 종탑 높이 35.296m, 건축면적 555.87㎡, 연면적 691.95㎡이다. 평면은 열주列柱와 볼트(Vault) 천장에 의해 넓은 신랑을 중심으로 양쪽에 측랑側廊(Aisle)을 둔 장방형의 삼랑식으로 좌우 양측의 익랑翼廊(Transept)에 의해 라틴 십자형의 구성을 한 고딕양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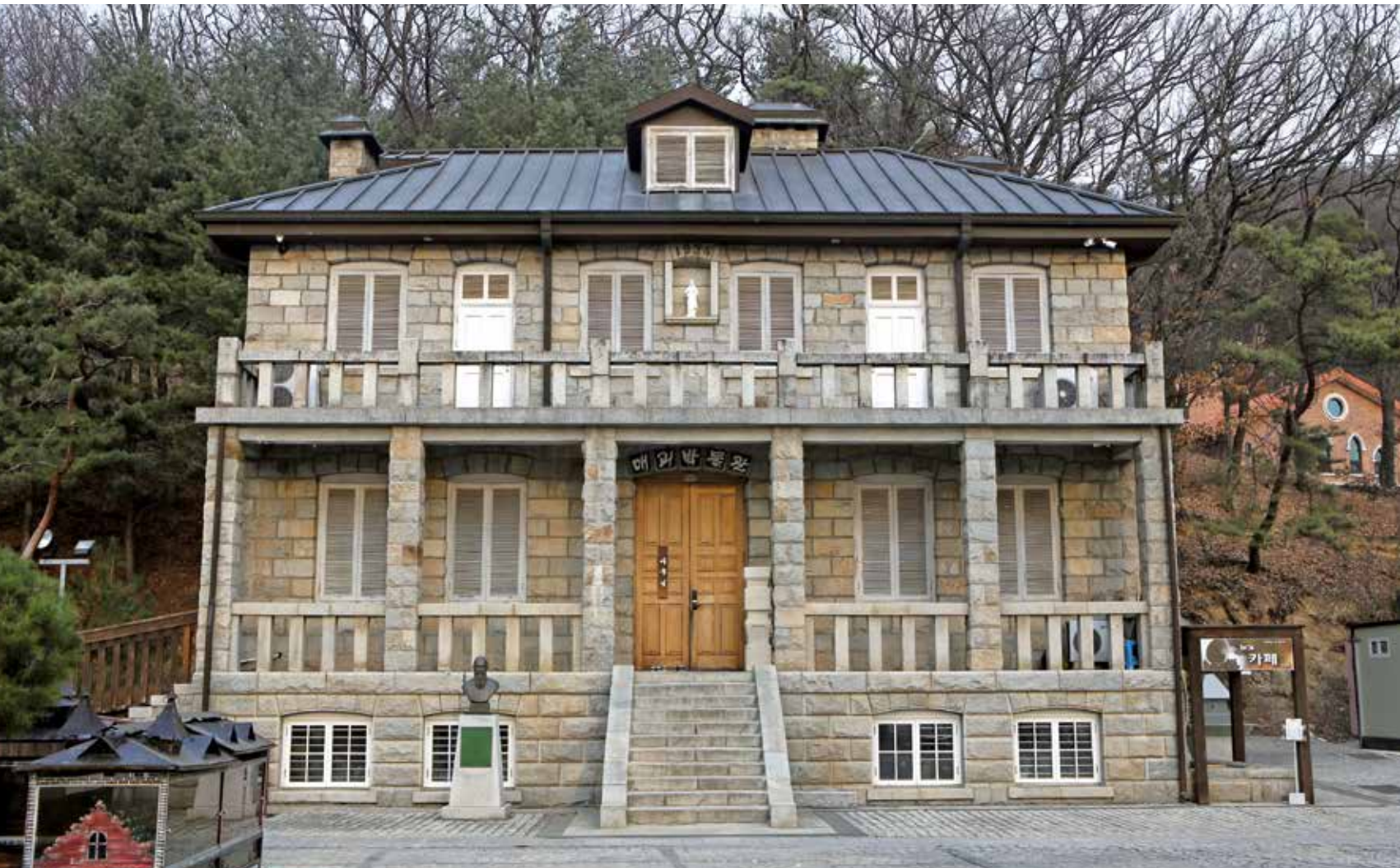
전실이 있고 신랑身廊(Nave)과 측랑을 갖으며 제단과 익랑을 갖는 바실리카식 평면형태를 보이고 있다. 내부공간은 종탑부 1베이(Bay), 회중석 6베이, 제단 2베이와 밖으로 5각으로 꺾어져 돌출된 내진부內陣部(Apse)와 그 주위로 연결된 보회랑의 제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단은 중앙에 하나의 큰 연단과 화강석 주제대가 있고, 5각으로 꺾어져 익랑 부분에 2개씩 설치되어 총 다섯 개의 제단을 갖추고 있다. 내부기둥은 기둥머리에 큰 4각형 받침이 있는 8각형의 석조기둥 16개가 있고, 주두는 궁륭천장穹窿天障과 리브(Rib)를 받치고 있다. 내부벽은 플라스터 마감이고 바닥은 목조마루이다. 신랑의 천장은 뾰족 베럴볼트(Pointed Barrel Vault)이고 측랑은 평천장인데 베이의 경계에는 리브가 있다.

입면은 지대석, 벽체, 지붕으로 구성되고 있다. 윗부분을 모접기한 3단 화강석 쌓기의 지대석 위에 부축벽과 벽체를 올리고 있다. 창호는 대부분 뾰족아치(Pointed Arch)로 아치 윗부분만 후드 몰딩(Hood Molding)으로 장식되어 있고, 창문은 격자 형태로 단순한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로 표현되어 있다. 파사드(Fasad, 정면부)는 중앙 종탑을 8각 뾰족탑 형태로 높게 하고 좌우에는 2개의 종탑을 낮게 구성하고 있다. 좌우 종탑의 하부는 계단실과 준비실로 되어있다. 지붕의 전면 종탑과 뾰족탑은 판각형의 모임지붕으로, 배면은 맨사드(Mansard, 상부는 완만하게, 하부는 급경사로 처리한 2단의 경사 지붕)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1920


카페

음성 감곡성당은 1930년에 벽돌조의 고딕양식으로 지은 바실리카식 성당이다. 당시의 서양건축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성당 건축은 프랑스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고딕양식을 추구하여 감곡성당도 명동성당과 같이 잔류 고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감곡성당은 건축사적 의미와 교회사적 의미가 결합되어 있으며 건축적·종교적으로도 탁월한 상징성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손태진

Gamgok Catholic Church is a Gothic-style brick building built in 1930 in Wangjang-ri, Gamgok-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At that time, western architecture started to be influenced by modernism, but cathedral buildings in Korea followed the gothic style under the influence of French missionaries. Like Myeongdong Cathedral in Seoul, this church follows the style of Gothic Revival.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architectural and church history makes it a valuable relic imbued with symbolism and the spirit of the times.



1931년 성전 내부



1940년대 후반



1970년

陰城 음성

음성 권근 및 경주이씨 묘표

陰城 權近 및 慶州李氏 墓表

Markers for the Tomb of Gwon Geun and Lady Yi from Gyeongju,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7호
수 량 2기
지정일 2001. 03. 30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능안로 377-16
소유자 안동권씨 문충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양촌 권근(陽村 權近, 1352~1409)과 그의 부인 경주이씨의 묘소에 있던 묘표로, 현재 사당 안에 위치하고 있다.

권근의 묘표는 권근이 1409년 2월에 죽은 후 그해 4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치모노금동(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예장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1444년(세종 26) 3월 묘지를 충주목 생동면으로 이장할 때 묘표는 함께 옮겨지지 못하고 광주에 있다가, 456년이 지난 1965년 권근 사당으로 이전해 보호·관리되고 있다. 부인 경주이씨 묘표는 세종 26년에 양촌 권근과 경주이씨 묘소를 이장할 때 별도로 보관하다가 1999년 4월에 현 위치인 권근 사당 안에 세워졌다.

권근 묘표는 지대석地臺石 위에 팔각형의 묘지석墓誌石을 세우고 묘지석 위에 옥개석屋蓋石을 얹은 형태이다. 묘지석만 원래의 것이고, 지대석과 옥개석은 훼손되어 후대 만들어 세운 것으로 보인다. 묘지석은 청석으로 만든 팔각형으로 석등의 간주석幹柱石처럼 생겼다. 8면 중 5면에만 글씨를 새겼는데, 내용과 필체, 글자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1409년 묘표를 세울 때부터 1444년 충주로 이장할 때까지 그때그때의 상황을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 묘표를 만들 때 글자는 3면만 새겼다. 제1면에는 '유명조선국 추충익대좌명공신有明朝鮮國 推忠翊戴佐命功臣', 제2면에는 '길창군 문충공양촌권씨지묘吉昌君 文忠公陽村權氏之墓', 제3면에는 '영락칠년기축 윤사월기유장永樂七年己丑 閏四月己酉葬'이라 썼다. 권근의 묘표는 영의정 하륜(河崙, 1347~1416)이 썼다는 기록이 있어 제1~3면의 글씨는 하륜의 글씨로 본다. 1423년 경주이씨가 죽어



장례를 치르며, 제8면에 '영락계묘삼월초삼일갑신 이부인이씨부장永樂癸卯三月初三日甲申 以夫人李氏附葬'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1444년 권근 부부묘를 충주로 이장하면서 제7면에 '정통갑자 이장충주正統甲子 移葬忠州' 글자를 새겨 넣었다. 묘표의 높이는 51㎝이고, 둘레는 80㎝이다.

권근 묘표 옆에 있는 부인 경주이씨 묘표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숙경택주 경주이씨지묘淑敬宅主 慶州李氏之墓'라고 쓰여 있으며, 지대석과 옥개석은 없다. 묘표의 높이는 92㎝, 폭은 48㎝, 두께는 13㎝이다.

양촌 권근의 묘표는 팔각형 기둥 모양의 돌에 조각한 특이한 형태로, 묘지석 상단부가 보완되기는 했지만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경주이씨의 묘표는 지대석과 옥개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나 조선 전기 묘표의 형식을 살펴볼 수 있다. 권근과 부인 경주이씨 묘표는 조선 전기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이상기



권근 묘표



경주이씨 묘표

These two stone markers were originally placed in the precincts of the tomb of Gwon Geun (courtesy name: Yangchon, 1352~1409), a renowned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and his wife Lady Yi from Gyeongju. The marker of Gwon Geun's tomb exhibits the unique shape of an octagonal pillar, and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ource of knowledge on tomb markers of early Joseon.

남충장공시고 목판

南忠壯公詩稿 木板

Namchungjanggong sigo mokpan (Woodblocks of the Poems of Nam Yeon-nye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8호
수 량 2건(목판 52판, 초고본 4책)
지정일 2002. 12. 06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83
소유자 의령남씨 양정공파 대종회
시 대 조선시대



Namchungjanggong sigo mokpan (Woodblocks of the Poems of Nam Yeon-nyeon) are printing blocks carved for the printing of the writings of Nam Yeon-nyeon (posthumous title: Chungjanggong, 1653~1728), a military official of Joseon who liv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Fifty-two woodblocks were carved in 1748 (the 2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Yeongjo of Joseon), comprising four blocks for the Preface, twenty-five blocks for the main body of the text, eighteen blocks for the Appendix, four blocks for the Postface and one for the title page.

This complete set of woodblocks with no missing blocks is considered of inestimable value for academic and literary research into the Joseon period, and is regarded especially important for xylographic research and the understanding of calligraphic styles used in woodblock printing.





「남충장공시고 목판」은 조선 영조 때의 무신 남연년(南延年, 1653~1728)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하여 1748년(영조 24)에 만든 목판이다.

남연년의 본관은 의령宜寧으로 자는 수백壽伯으로, 부친은 남두명南斗明이다. 1676년(숙종 2)에 무과에 급제, 선전관을 거쳐 1727년에 청주영장淸州營將이 되어 토포사를 겸하였다. 이듬해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난을 진압하던 중 청주성이 함락되면서 절도사 이봉상李鳳祥과 함께 붙잡혔으나, 반도들에게 굴하지 않고 꾸짖다가 죽었다. 1728년에 좌찬성에 추증되고 이듬해에 숭선군崇善君에 추봉되었으며 청주의 표충사表忠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남충장공시고』가 있다.

의령남씨 양정공파 대종회 소장본인 「남충장공시고 목판」은 서序 4판, 원고原稿 25판, 부록附錄 18판, 발跋 4판, 공표제共標題 1판 등 모두 52판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47㎝, 세로 23㎝, 두께 1㎝내외이다. 반곽의 크기는 22.6×15㎝로 계선이 있고 본문은 반엽 6행 13자로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이다.

한편, 초고본 4책은 『남충장공시고』로서 유고遺稿 수초본手草本에 수록된 1,600여수에 달하는 시 중에서 100여수의 시를 당시의 문신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왕명으로 편집·간행한 것이다. 1권은 74면, 2권은 120면, 3권은 100면, 4권은 136면이다. 행수는 4책 모두 12행이다.

「남충장공시고 목판」은 시문집으로서 결판 없이 전판이 보존되어 있어 학술적·문학적 연구와 목판의 각자刻字·서체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정제규

음성 감곡성당 소장유물

陰城 甘谷聖堂 所藏遺物

Relics kept at Gamgok Catholic Church,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19호
수 량 2점
지정일 2002. 12. 06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성당길 10 감곡성당
소유자 천주교 청주교구 감곡천주교회
시 대 일제강점기



예수성심기



성모성심기

음성 감곡성당에 소장된 종교행사용 깃발 2점으로 예수성심기聖心旗와 성모성심기이다. 이 유물들은 1896년에 감곡성당을 설립한 임 가밀로 부이용(R. Camillus Bouillon, 한국명 임가미任加彌) 신부가 1913년부터 1914년에 걸쳐 이 성당의 한국인 수녀에게 제작하게 한 것으로, 1914년 6월 제1회 성체거동聖體擧動 이래 천주교 행사의 일환으로 성체현양대회와 예수성심대축일, 예수성심성월에 사용하던 것이다.

예수성심기는 106×173㎝의 크기로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졌다. 아랫부분이 3개로 갈라져 각각 반원을 이루고 있고 위에서 고정시켜 늘어뜨리게 되어 있다. 이 깃발에는 붉은 비단의 가운데에 흰옷을 입고 푸른 옷을 어깨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천을 겹겹이 누벼서 표현되어 있다. 예수의 어깨에 걸친 푸른 옷에는 금박의 작은 별 무늬가 붙어 있으나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 예수의 가슴 한가운데에 붉은색으로 가시가 둘러쳐진 심장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심장 위에 금빛의 십자가가 꽂혀 있고 물과 빛이 솟구치는 것처럼 심장 주위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심장에 불꽃이 타오르거나 가시가 둘러쳐진 그림은 예수의 사랑(예수 성심)을 상징한다. 심장에서 흘러내린 물은 영혼을 깨끗이 씻고 초자연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성체성사를 뜻하며, 피는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영혼의 양식인 성체성사를 뜻한다. 예수의 양 옆으로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이 길게 자라고 있다. 깃발의 하단과 상단에 모란과 같은 큰 꽃이 각각 3송이씩 피어 있으며, 포도가 달린 덩굴과 얽혀 있다. 이들 꽃과 덩굴이 예수의 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형상이다. 예수의 몸은 천을 누벼서 나타내고 주변의 꽃 넝쿨은 모두 동양자수로 나타낸 반면, 예수의 얼굴과 손, 발은 종이에 그려서 꿰매어 붙였다.

성모성심기는 106×177㎝의 크기로, 흰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아랫부분이 3개의 반원을 이루고 있어 예수성심기와 동일한 형식을 보이고 있으나 약간 더 길다. 보존 상태는 그리 좋지 않은데 이는 오랜 기간 사용한 데다, 세탁 과정에서 많이 닳은 탓으로 보인다. 흰 비단의 중앙에는 성모와 아기예수가 천을 겹쳐 누벼서 표현되어 있다. 성모 마리아는 붉은 옷을 입고 어깨에 녹색 옷을 걸치고 있다. 아기예수는 흰옷을 입고 왼손에 묵주를 들고 있으며, 성모 마리아도 오른손에 묵주를 늘어뜨리고 있다. 깃발의 둘레에는 두 줄기의 장미넝쿨이 하단에서 교차되어 성모와 아기 예수 주변을 상단까지 감싸면서 올라간다. 깃발 하단의 반원형 부분에도 하나씩의 장미 꽃송이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성모의 손에 들린 묵주와 함께 묵주의 기도(ROSARIO)를 상징한다. 깃발 가장 윗부분에는 작게 비둘기 모양의 자수가 놓아져 있는데, 이는 성모 마리아가 잉태할 때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찾아온 일을 상징한다. 즉 이 깃발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후 예수의 전 생애 동안 구원활동에 이바지함을 기리고, 성모를 공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모와 아기예수의 얼굴과 손, 발은 종이에 그려져 꿰매어 붙였다.

이 두 성심기는 형태와 규모가 특이하여 한국천주교사의 연구 및 자수법刺繡法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범현

These two relics are Catholic flags bearing the Sacred Heart of Jesus and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Father R. Camillus Bouillon (Korean name: Im Ga-mi), who founded Gamgok Catholic Church in 1896, asked a Korean nun to make them in 1913 or 1914. The flags have been used at special Catholic events, including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Festival and Corpus Christi, ever since Korea's first Corpus Christi procession in 1914.



음성 보현암 석조아미타여래좌상

陰城 普賢庵 石造阿彌陀如來坐像

Stone Seated Amitabha Buddha of Bohyeonam Hermitage,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4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7. 11. 23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탑골길 30-41 보현암
소유자 권순성
시 대 고려 말 ~ 조선 초



음성 보현암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보현암에 안치되어 있다. 이 불상은 1970년 무렵에 인근 오선초등학교 교정에서 출토되어 보현암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한다. 높이 113㎝에 불과한 작은 크기의 불상이며 1매의 석재에 불신佛身과 광배光背를 나타내었다. 불상의 아랫부분은 사선방향으로 쪼개졌다가 근래에 보수되었다.

광배는 거신광擧身光의 형식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원형으로 나타내었고 그 주변으로 화염문을 조각하였다. 불상의 체구는 아담한 편이다. 육계肉髻는 넓으며, 머리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다. 머리카락은 소발素髮이며 귀가 어깨에 닿을 듯이 길게 늘어져 있다. 이마에는 백호白毫가 커다랗게 파여 있다. 얼굴은 광대가 튀어나와서 두드러지며, 입가에 팔자주름과 턱에는 세로의 선을 새기고 있어 안면 각 부위의 윤곽이 매우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이상화된 절대자가 아니라 세속의 권력자를 모델로 한 듯이 친근하면서도 인자한 인상이다. 단전 부근에 두 손을 모은 채로 아미타불의 수인인 정인定印을 결하고 있다. 대의는 편단우견 방식으로 걸쳤으며, 오른쪽 어깨를 대의자락으로 살짝 덮고 있으며 왼쪽의 대의는 띠로 묶었다. 가슴에는 내의가 표현되어 있다. 다리는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대의가 발을 완전히 덮고 있어 발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반신에는 옷주름의 표현도 거의 없다.

음성 보현암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고부조高浮彫로 불상을 조각했지만 불신에 양감이 강조되지는 않았고, 몸매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아담한 체구에 친근감을 주는 세속적인 인상, 수인의 형식, 대의의 착의법과 표현방식 등을 볼 때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민

This stone statue of seated Amitabha enshrined in Bohyeonam Hermitage of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is marked by high-relief carving and a lack of volume and proportion. The comfortably small body and friendly face, symbolic hand gesture, and manner of attire suggest that it was produced during the Goryeo period.



음성 보현암 석조관음보살의좌상

陰城 普賢庵 石造觀音菩薩椅坐像

Ston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of Bohyeonam Hermitage, Eumseong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5호
수 량 1구
지정일 2007. 11. 23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탑골길 30-41 보현암
소유자 권순성
시 대 고려 말 ~ 조선 초

음성 보현암 석조관음보살의 좌상은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보현암에 봉안되어 있다. 이 불상은 현재 봉안처인 보현암에서 출토되었는데, 이곳에는 탑골사로 전해지는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경내에는 석탑의 부재, 주초석 등의 석조물편이 다수 전하고 있어 이곳에 오래전부터 사찰이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은 높이 103㎝로 규모가 작다. 1매의 석재에 불신과 광배를 모두 나타내었는데, 마멸이 매우 심한 편으로 세부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현암 석조보살상은 결가부좌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풀어 내리고 있는 반가좌半跏坐의 자세를 하고 있다. 머리에는 삼면으로 둘러진 보관을 쓰고 있다. 얼굴은 턱이 갸름한 편이고 이목구비의 윤곽 정도만 파악될 뿐 마멸로 인하여 인상까지 살펴볼 수는 없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고 있으며 왼손은 배 위에 두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연꽃가지 같은 지물持物를 쥐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마멸이 심해서 법의의 착의방식이나 표현방식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하반신의 옷주름은 비교적 뚜렷한데 같은 간격을 이루면서 매우 도식적으로 표현되어있다.

보현암 석조보살상은 함께 안치되어 있는 석조아미타불상과 크기가 거의 같으며 광배의 형식이나 두꺼운 원형의 선으로 두광과 신광을 표현하는 방식 등이 같아 원래부터 조합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석조보살상은 조각수법 면에서 석조아미타불상보다 훨씬 조악하여 한꺼번에 조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내에 전하는 고려시대의 석조물편들과 비교하더라도 조각 솜씨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사찰 경내의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잔존하는 석조물들을 볼 때 고려시대에 지역에서 꽤 번영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 석조보살상은 그보다 늦은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이 지역의 불교도들이 발원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서지민

This stone statue of seated Avalokitesvara, currently enshrined in Bohyeonam Hermitage in Geumwang-eup,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for a Buddhist temple called Tapgolsa which occupied the site before the hermitage. The Avalokitesvara statue shares remarkable similarities in terms of size and appearance with the seated Amitabha statue that is also enshrined in Bohyeonam Hermitage, although the carving of Avalokitesvara is much cruder than the latter, suggesting that they were not made in the same period. Other stone works preserved in the hermitage suggest that it was built during the mid-Goryeo period, but this particular statue seems to have been made between late Goryeo and early Joseon.

동의보감

東醫寶鑑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5호
수 량 3권 3책
지정일 2012. 10. 12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한독의약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Dongui bogam (Principles and Practice of Eastern Medicine) by the Joseon physician Heo Jun (1539~1615) is regarded as the greatest of Korean medical publications of this period. *Dongui bogam,* compiled by the order of the king, was completed in 1610 (the 2nd year of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of Joseon). This version in the collection of the Ha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macy is comprised of three of the twenty-five books making up this work; namely Book 2 of *Naegyeongpyeon* (Internal View), Book 1 of *Oehyeongpyeon* (Outer Appearance), and Book 3 of *Chimgupye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외형편 권1 권수



침구법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조선 선조 대의 태의太醫 허준(許浚, 1539-1615)이 왕명을 받아 유의儒醫인 정작鄭碏, 태의太醫 이명원李命源, 양예수楊禮壽, 김응탁金應鐸, 정예남鄭禮南 등과 함께 당시 조선과 중국에 유통되던 의약서를 참고하고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법을 엮어 찬집纂集을 시작하였으나 정유재란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 후 선조는 내방의서內藏方書 500권을 내어주고 허준에게 단독으로 편찬하게 하여 1610년(광해군 2)에 완성한 한의학서이다. 초간본은 편찬된 지 3년 후인 1613년(광해군 5) 11월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으며 모두 25권 25책이다.

한독박물관 소장본인 『동의보감』은 전 25책 중에서 내경편內景篇 권2, 외형편外形篇 권1, 침구편鍼灸篇의 3책이다. 이 중에서 외형편 권1과 침구편은 1613년 11월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초간 목활자본이나, 내경편 권2는 판본 미상의 후대 목판본이다.

책의 형태는 사주쌍변四周雙邊 반곽半郭 27.6×17.9㎝의 크기로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0행 21자이다. 주쌍행註雙行이며 상하내향혼엽(2·3)화문어미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4×21㎝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내경편과 외형편 권수제면 하단에 '이겸로인李謙魯印'과 '통문관주通文館主' 인문印文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1934년 서울 관훈동에 설립되었던 고서점 '통문관'의 주인인 이겸로의 장서인으로 조사본의 유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외형편 권1에는 권수제면 우측 하단에 '만소당晩嘯堂'이라는 묵서도 보인다. 반면에 침구편에는 묵서나 소장인이 없으나, 지첨紙簽에 묵서된 한글주석이 천두부天頭部에 첨부되어 있다.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 『동의보감』은 비록 완질본은 아니지만, 조선 중기의 활자인쇄문화는 물론 의학 및 서지학의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높다.

정제규

언해두창집요

諺解痘瘡集要

Eonhae duchang jibyo (Essentials of Smallpox, Korean Translation)

유형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46호
수 량 1책
지정일 2012. 10. 12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풍산단로 78 한독의약박물관
소유자 한독의약박물관
시 대 조선시대



권상 권수

Eonhae duchang jibyo is the Korean translation of *Duchang jibyo* (Essentials of Smallpox), published in 1601 (the 34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eonjo of Joseon) for the treatment of Prince Gwanghaegun and others affected by the smallpox epidemic that struck Joseon in the aftermath of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This copy of *Eonhae duchang jibyo* in the collection of the Handok Museum of Medicine and Pharmacy is a woodblock-printed edition, donated by the late physician Kim Doo-jong. The book sheds light on woodblock printing in mid-Joseon and is considered tremendously important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in the 17th century.



이공산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는 1601년(선조 34)에 두창痘瘡(천연두)에서 회복한 광해군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직후 창궐한 두창을 치료하기 위해 허준(許浚, 1539~1615)이 두창에 관한 방문方文을 모아 1608년(선조 41) 내의원內醫院에서 한글 언해본으로 간행한 의서醫書이다.

이 책은 본래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본은 권상卷上이다. 상권에서는 두창의 원인·예방법·증상 및 해독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하권에는 두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하여 쓰고 있으며 음식·금기禁忌·욕법浴法·양법穰法·두후잡병痘后雜病·잉부두창孕婦痘瘡·반진斑疹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된 인용서목引用書目은 『의학입문醫學入門』·『고금의감古今醫鑑』, 전씨錢氏의 『소아직결小兒直訣』·『득효방得効方』·『만병회춘萬病回春』 등이다.

책의 형태는 사주단변四周單邊에 반곽半郭 23×17.2㎝의 크기이다. 계선이 있으며 본문은 11행 20자, 어미는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전체 크기는 31.3×21.8㎝이며 저지楮紙를 사용하였다.

한독박물관 소장본인 『언해두창집요』는 고 김두종金斗鐘 박사가 기증한 문화재로, 조선 중기의 목판 인쇄문화는 물론 17세기 국어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천연두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 온 질병이었으며 전근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질병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 책은 전근대 의료의 중요한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서라고 볼 수 있다.

정제규

陰城 음성

음성 권근 삼대 묘소 및 신도비

陰城 權近 三代 墓所 및 神道碑

Tombs of Gwon Geun, His Son and Grandson with Memorial Stele, Eumseo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
면 적 19,873㎡
지정일 1980. 01. 09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능안로 377-15
소유자 안동권씨 문충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권근 신도비



신도비각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인 양촌 권근(陽村 權近, 1352~1409)과 그의 아들 권제(權踶, 1387~1445), 손자 권람(權擥, 1416~1465)의 삼대 묘로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권씨 문충공파 묘역이 이곳에 들어선 것은 1444년이다. 권제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치모노금동(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있던 아버지 권근의 묘소를 이곳 충주목 생동면(현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으로 이장했기 때문이다. 그 후 1445년 권제가 죽어 이곳에 묻혔고, 1465년 권람이 죽어 이곳에 묻히면서 권근 삼대묘라 불리게 되었다.

권근은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 개국 후 큰 역할을 한 학자이자 정치가였으며 외교관이었다. 벼슬은 예문관대제학과 의정부찬성사에 이르렀고, 경서經書, 사서史書, 외교문서에 능해 문장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1409년 2월 14일 세상을 떠나 광주 땅에 묻혔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아들이 네명 있었으며 각각 권천權踐, 권도權蹈(권제의 옛 이름), 권규權跬, 권준權蹲이다.

권제는 벼슬이 우찬성이 이르렀고, 권근의 대를 이었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권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권람이고 작은 아들이 권반權攀이다.

권람은 1450년(문종 1) 문과에 급제해 벼슬이 좌의정(1462년)에 이르렀다. 이처럼 빠른 출세를 한 것은 1453년 계유정난에 참여해 세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권람은 그 공으로 정난공신靖難功臣에 책봉되었다. 시호는 익평翼平이며 세조묘世祖廟에 배향되었다.



권근 묘소



권제 묘소



권람 묘소

이들 3대묘는 권근의 묘가 가장 위에 있고, 권제의 묘가 중간에 있으며, 권람의 묘가 가장 아래 있다.

권근의 묘는 8각형의 봉분이 들어서 있는 형태로 부인과 함께 한 합장묘이다. 앞에 묘비 2기, 상석 2기, 문인석 4기, 장명등 1기가 있다. 봉분은 높이 2.4m, 너비 6.5m로, 호석 형태로 2단의 면석을 둘렀다. 면석 귀퉁이에는 쐐기돌을 끼워 면석과 봉분을 연결했다.

권근의 묘비는 부인 경주이씨 묘비와 함께 무덤 앞에 나란히 세워졌다. 권근의 묘비 전면에는 '조선국좌명공신 의정부찬성사 시문충공 양촌권선생지묘朝鮮國佐命功臣 議政府贊成事 諡文忠公 陽村權先生之墓'라 쓰여 있다. 후면에는 '유명정통구년갑자삼월초십일有明正統九年甲子三月初十日'이라 쓰여 있다. 묘비 앞에는 상석이 있고, 그 앞 가운데 장명등이 서 있다. 장명등 앞 양쪽에는 크기가 다른 문인석을 1쌍씩 2쌍 배치했다.

권제의 묘는 권근의 묘 아래에 있다. 봉분은 권근의 묘소와 같은 형태로, 8각형의 봉분 앞에 묘비와 상석이 있다. 묘비는 전면이 묘표, 후면이 묘갈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면에는 위에 가로로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 썼다. 그 아래 세로 5행으로 '정통 을축 사월십육일졸 증영의정부사 길창부원군 행우찬성문경공지재선생권공제지묘 구월초삼일장正統乙丑四月十六日卒 贈領議政府事吉昌府院君行右贊成文景公止齋先生權公踶之墓 九月初三日葬'이라 썼다. 후면에는 세로 6행으로, 가계를 기술하고 과거 합격사실을 적었으며 마지막에 1457년(세조 3) 3월 4일에 비석을 세운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묘비 앞에는 장명등이 있고, 그 앞 양쪽에 문관석 1쌍을 배치했다.

권람의 묘는 권제의 묘 아래에 있다. 원형 봉분으로 앞쪽에만 사다리꼴 모양의 호석을 둘렀다. 그 앞에 권람과 부인 고성이씨의 묘비를 배치했다. 권람의 묘비 전면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이라 썼다. 그 아래 세로 7행으로 죽은 날짜와 장례일 그리고 벼슬을 기록했다. 묘비 후면에는 가계를 기술하고 과거 합격사실과 공신책봉 사실을 적었다. 이들 묘비 앞에는 하나의 상석과 장명등이 배치되었고 그 앞으로 문관석 1쌍이 배치되었다.

이들 묘역에서 동남쪽으로 100m 떨어진 곳에 권씨 3대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신도비각에는 문충공文忠公, 문경공文景公, 익평공翼平公 신도비각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권근의 신도비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비신의 높이는 218㎝이다. 권제의 신도비는 북쪽 권근과 남쪽 권람 신도비 사이에 위치한다.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비신의 높이는 220㎝이다. 권람의 신도비는 권제 신도비 남쪽에 위치한다. 흰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비신의 높이는 220㎝이다. 이들 신도비는 권근, 권제, 권람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1991년에 신도비를 보호하기 위해 비각을 설치했다.

권근 3대 묘소는 봉분, 묘비와 석물, 신도비 등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사례로, 조선 초기 사대부의 묘제를 살펴보고 연구하는데 표본이자 모범이 된다. 또한 이들 묘소를 관리하고 기록한 내용까지 사당과 재실에 잘 보존되고 있어 더욱 가치가 크다.

이상기



1921년 권근 묘소

These three tombs, located at 377-15, Neungan-ro, Saenggeuk-myeon, Eumseong-gun, are the graves of Gwon Geun (1352~1409), a renowned Confucian scholar-official of late Goryeo (918~1392), his son Gwon Je, and his grandson Gwon Ram, who served the following Joseon dynasty (1392~1910). Standing beside the graves, which are arranged one above another, is a stone memorial stele honoring their lives and achievements.

陰城 음성

음성 경녕군 부인 김씨 묘소

陰城 敬寧君 夫人 金氏 墓所

Tomb of Lady Kim, Wife of Prince Gyeongnyeonggun, Eumseo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99호
면 적 2,500㎡
지정일 1994. 12. 30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산15-1
소유자 이승로
시 대 조선시대



조선 태종太宗의 서장자庶長子 경녕군(敬寧君, 1395~1458)의 부인 청풍김씨淸風金氏 묘다.

안산군부인安山郡夫人 청풍김씨는 참의 김관金灌의 딸이다. 1395년 12월 13일 정안군(후에 태종)과 효빈김씨孝嬪金氏 사이에서 태어난 경녕군과 1416년 결혼했다. 이듬해인 1417년 경녕군이 정헌대부에 봉작되자, 청풍김씨도 경신택주敬愼宅主 안산군부인에 봉해졌다. 1450년 사망하여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잔작동에 장사지냈다.

경녕군은 1458년(세조 4) 부인 청풍김씨의 묘소와 가까운 충주목 숭선으로 낙향했고, 그해 9월 6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제간齊簡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충주목 황금곡黃金谷에 장사지냈다. 그에 따라 청풍김씨도 삼한부부인三韓府夫人으로 봉해졌고, 12월에는 묘에 묘표와 석물 등을 설치해 예를 갖췄다. 이후 1871년(고종 8) 추가로 청원부부인淸原府夫人에 봉해졌다.

경녕군 부인 김씨 묘소는 조선 전기 분묘양식에 따라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각형의 봉분에 호석護石을 두르고 있고, 그 앞에 묘표를 설치했다. 묘표에는 '조선국왕자 경녕군비 제간공처 안산군부인 김씨지묘朝鮮國王子 敬寧君裨 齊簡公妻 安山郡夫人 金氏之墓'라고 적혀 있으며 그 앞에는 화강암으로 된 상석이 있다. 상석 한 단 아래 장명등 1기가 세워져 있었는데, 1998년 11월 분실되어 새로운 것으로 세웠다. 장명등 한 단 아래에는 좌우에 문관석이 한 쌍 세워져 있으며 문관석 아래 참배를 위한 공간이 있다.

경녕군 부인 김씨 묘소는 조선 초기 왕족 부인의 분묘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례이며, 특히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사각형 묘제를 따르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

이상기

This is the tomb of Lady Kim from Cheongpung, wife of Prince Gyeongnyeonggun, a son of King Taejong (r. 1400~1418), the third ruler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tomb features the characteristic square layout of tombs of the early Joseon period, and is regarded as a valuable source of knowledge on the tombs of minor royals of the early Joseon period.



묘비



문인석

음성 수정산성

陰城 水精山城

Sujeongsanseong Fortress, Eumseo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11호
둘레 | 면적 577m | 42,184㎡
지정일 1999. 12. 3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산14-1 외
소유자 국유, 공유, 사유
시 대 통일신라



음성 수정산성은 충청북도 음성군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다. 해발 396.3m의 수정산 정상부에 축조되었다. 성의 북쪽에는 음성의 진산鎭山인 가섭산迦葉山이 있고, 남쪽으로는 음성천陰城川이 동쪽으로 흘러 충주로 향하는 달천達川과 합류한다. 이곳은 동쪽의 충주 방면·서쪽의 일죽 방면·남서쪽의 증평 방면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수정산성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잘 남아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수정산에 위치한 고산성古山城은 둘레 1,271척 높이 10척 규모의 석축성으로 내부에 우물 하나가 있으며 당시에는 이미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의 문헌기록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으나, 1871년에 편찬된 『호서읍지湖西邑誌』 지도에는 무너진 성벽구간을 토축성벽으로 오인하여 수정산 토성水精山 土城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곳의 구전口傳으로는 고려 고종高宗 때의 장군 박서朴犀가 음성백陰城伯으로 있으면서 수정산에 석성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학술조사는 1997년 충주산업대학교 박물관(현 한국교통대학교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차례 이루어졌다. 이후 성벽구간을 복원정비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3년에 청주대학교 박물관의 주관으로 두 차례 시굴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산성의 현황과 성벽 구조 및 활용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의 전체 둘레는 577m이고, 잔존상태가 좋은 구간에서는 약 6~7m 높이로 남아있다. 삼각형 모양의 평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지형 상 산성의 주된 방어방향은 서쪽의 음성 방면으로 보인다. 문지門址는 동문·서문·북문 3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성 내부에는 폭 4~5m의 내환도內環道가 성벽을 따라 개설되어 있고, 건물지도 3동 이상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2차 시굴조사를 통해 앞선 시기에 토루가 먼저 사용되다가 석축 성벽이 조성되었고, 성벽 축조방식은 내벽과 외벽을 함께 쌓는 내외협축內外夾築이었음이 밝혀졌다. 성벽은 주로 화강암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되었으며, 경사도는 약 71~81°로 비교적 가파른 편이다. 성의 세 모서리와 동벽부에서는 일종의 치성雉城처럼 성벽을 앞으로 길게 돌출시킨 특징이 확인된다.





성벽

수정산성에서는 주로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 전기의 토기와 기와 편이 출토되었다. 특히 연꽃무늬막새[蓮花紋瓦當]와 도장무늬토기[印花紋土器] 등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많이 수습되었다. 이밖에 2013년 발굴조사 때 발견된 굽다리접시[高杯] 편은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관련한 7세기 전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수정산성은 출토유물과 성벽 축조순서 등으로 볼 때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용되었고, 중부 지방의 각지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백종오



추정 문지

Sujeongsanseong, located at an area stretching from Eumnae-ri to Pyeonggok-ri of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is a stone fortress built in the so-called *temoe* style, to enclose a mountain summit. The fortress extends to approximately 577m in circumference. The height of the wall in its best preserved section is about 6-7m. Since its construction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the fortress was continuously in use into the Goryeo period. The fortress served the function of controlling roads leading to various parts in the central Korean peninsula.

陰城 음성

음성 망이산성

陰城 望夷山城

Mangisanseong Fortress, Eumseo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28호
둘 레 2,080m
지정일 2003. 04. 1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30-1
소유자 국유
시 대 삼국시대





음성 망이산성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와 대야리·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와 이천시 율면 일대에 위치한 성이다.

해발 472m의 망이산望夷山 정상부와 인근의 두 봉우리를 감싸고 북쪽의 골짜기까지 에워싸서 축조된 포곡식包谷式 산성으로, 구조는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식 형태이다. 북쪽의 안성시 일죽면·동쪽의 이천시 율면·남쪽의 음성군 삼성면 일대가 한 눈에 조망되며, 인근의 남북 교통로를 통제하기에 유리한 지점에 있다.

망이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망이산의 봉수烽燧와 관련하여 망이성望夷城의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이후 1942년 간행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서 이곳에 석성石城이 있다고 간략하게 기록하였으나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

망이산성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8년 음성군 지표조사에서 발견된 '관官'자명 기와를 통해서였다. 이후 1992년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성곽의 구조 및 시설물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95년·1998년·2005년에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됨으로써 토성土城, 서문지, 남문지, 치성雉城, 팔각건물지 등이 조사되었으며, 2007년 4차 발굴조사에서는 치성 2개소와 집수시설이 확인되었다.

내성은 망이산 정상부에 흙으로 토루를 쌓은 테뫼식 형태의 토축산성으로, 둘레는 약 250m이다. 모래와 점토 등을 반복하여 층층이 다진 판축版築 기법으로 축조되었고, 외벽의 높이는 약 4~6m에 이른다. 내부에는 조선시대 봉수가 위치하고 있으며, 너비 3m·높이 2.5m의 문지門址도 확인된다. 내성에서는 조족문鳥足文 토기·항아리·바리·시루 등 백제 한성기漢城期의 토기편이 주로 발견되었다.



발굴조사 전경(배수로 암거)

외성은 전체 둘레 2,080m의 석축산성이며, 장방형의 평면 형태를 띠고 있다. 외성의 대부분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외벽만 조성하는 편축片築 방식으로 축조되었으나, 완만한 지형이나 문지 주변에서는 내외협축內外夾築의 축성방식도 확인된다. 성벽은 주로 화강암을 다듬어 정연하게 쌓았다. 시설물로는 네 방향에 각각 설치된 4개의 문지門址가 있는데, 그 중 북문지는 가파른 지형으로 볼 때 암문暗門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성에는 5개의 치성을 갖추고 있다. 4개의 치성은 방어력 보강을 위해 문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벽의 치성은 봉수대 주변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성의 내부 평탄지에서는 수혈유구와 함께 팔각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제사나 의식의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

외성의 남문지와 서문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 전기의 기와와 토기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특히 유구 상층에서 발견된 '준풍4년峻豊四年'명 기와는 963년(광종 14)에 해당되는 유물로서, 외성이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되다가 고려 초기에 대대적으로 개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수시설

망이산성은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면서 주위를 잘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성곽으로,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봉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곳에서 출토된 한성백제기, 통일신라시대, 고려 전기의 특징적인 유물을 통해 망이산성의 지리적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백종오

Mangisanseong is a fortress built on Mangisan Mountain, which forms the boundary betwee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and Anseong-gun and Icheon, Gyeonggi-do. The fortress is constructed in such a way as to encompass a valley, in a style known as *pogok*. The enceinte is enclosed by two tiers of walls; the inner and outer walls. The inner wall, built of earth, extends to 250m in circumference, and the outer wall, built with stone, measures 2,080m in circumference. Its location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well as artifacts recovered from the site, suggest that it was a fortress of strategic importance, which was continuously in use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hrough to the Goryeo period.

陰城 음성

음성 어재연 · 어재순 묘소

陰城 魚在淵 · 魚在淳 墓所

Tombs of Eo Jae-yeon and Eo Jae-sun, Eumseong

기념물

종 목 충청북도 기념물 제162호
면 적 30,400㎡
지정일 2014. 10. 02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 22-1
소유자 함종어씨 충장공파 종중
시 대 조선시대



These are the tombs of two patriotic brothers, Eo Jae-yeon and Eo Jae-sun, who died heroic deaths at the Battle of Gwangseongbo, which was fought against the US Expedition to Korea (or Sinmiyangyo, "Western Disturbance of the Sinmi Year") in 1871. Eo Jae-yeon was posthumously awarded the position of Minister of Defence and the honorary title of *Chungjang*.



신미양요辛未洋擾 때 강화도 광성보에서 미군 함대의 공격을 막다 전사한 충장공忠壯公 어재연(魚在淵, 1823~1871)과 그의 동생 어재순(魚在淳, 1826~1871)의 묘소다.

어재연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1841년(헌종 7) 무과에 급제했다. 1847년 광양현감, 1856년 풍천부사, 1864년 장단부사가 되었다. 1866년 공충도(충청도)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로즈 제독이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해오자 병사를 이끌고 광성진廣城鎭을 방어했다. 1871년 4월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의 아시아 함대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을 침공하자(신미양요), 어재연 장군은 진무중군鎭撫中軍에 임명되어 병사를 이끌고 동생 어재순과 함께 미군과 전투를 벌이다 전사하였다. 어재연 장군 사후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겸 지삼군부사를 추증하고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어재순은 어재연의 아우로 형을 따라 군직에 종사하다 신미양요 때 광성진 전투에서 형과 함께 전사했다. 후에 통정대부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어재연·어재순 묘는 평범한 봉토분으로, 같은 공간에 옆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묘 앞에는 상석이 있고, 묘 옆에는 1973년 3월에 세운 묘표가 있다. 어재연 묘표에는 '증자헌대부병조판서겸 지의금부삼군부훈련원사 행가선대부행용양위호군겸 오위도총부부총관 증시충장함종어공재연지묘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 知義禁府三軍府訓練院事 行嘉善大夫行龍驤位護軍兼五衛都摠府副摠管 贈諡忠壯咸從魚公在淵之墓'라 쓰여 있다. 어재순 묘표에는 '증통정대부이조참의 함종어공재순지묘贈通政大夫吏曹參議 咸從魚公在淳之墓'라 쓰여 있다.

어재연 어재순 묘소 100m 아래에는 함종어씨 재실인 쌍충재雙忠齋가 있다. 재실 오른쪽 아래에는 1983년 2월에 세운 신도비 2기가 있다. 왼쪽의 좀 더 큰 것이 어재연 신도비고, 오른쪽의 좀 더 작은 것이 어재순 신도비다. 어재연 신도비의 높이는 전체 363㎝이며 각각 귀부 70㎝, 비신 218㎝, 이수 75㎝이다. 어재순 신도비의 높이는 348㎝이며 각각 귀부 65㎝ 비신 208㎝ 이수 75㎝이다.

어재연·어재순 묘소는 국난을 당했을 때 함께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지휘관의 우국충정과 형제애를 보여주며, 조선군의 용기와 조국 수호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장소로서의 가치도 크다.

이상기

음성 마송리 석장승

陰城 馬松里 石長丞

Stone Guardian Posts of Masong-ri, Eumseong

민속문화재

종 목 충청북도 민속문화재 제12호
수 량 3기
지정일 2002. 03. 15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1157-28
소유자 마송리 마을주민
시 대 조선시대

음성 마송리 석장승은 조선 초기에 세워진 석장승 3기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오미마을 앞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음성 마송리 석장승의 조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장승 양식이 불상 머리 모양인 불두형으로(1호 석장승) 이마에 백호를 박은 흔적이 있고, 조각한 선 등이 풍화에 닳은 정도로 보았을 때 조선 초기의 것으로 짐작된다. 음성 마송리 오미마을 앞 하천변에 약 100m 간격으로 돌장승 3기가 위치한다. 석장승이 현재 위치에 자리 잡기 전 150여 년 전에 한 번 옮겨졌고, 충북선 공사로 인해 다시 한 번 지금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고 전한다.

장승이 위치한 오미마을은 청주 고씨高氏 집성촌이기도 하다. 이들의 구전에 따르면 1712년 이 마을 출신 고중명(高重明, 1681~1765)이 무과에 합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석장승을 세운 것이라 한다. 고중명이 무과에 합격한 해로부터 정확히 280년 전 조상인 고덕수高德秀가 1432년(세종 14) 식년시式年試에 진사進士 4위로 합격하고, 그 후 15년 뒤인 1447년(세종 29)에 고덕칭高德稱이 식년시 정과丁科에 15위로 합격한 후 처음 맞는 경사였기에 이를 경축하고 기념하며 자손 대대로 귀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3기의 석장승 중 1호 장승은 높이 240㎝, 앞면 너비가 약 40㎝, 얼굴길이가 80㎝의 크기이다. 미륵불 형태로 훤칠한 키에 길쭉한 얼굴 모양이다. 머리에는 관음보살과 같은 관을 쓰고 있고 이마에는 동그란 백호가 표시되어 있다. 눈은 一자 모양이다. 얼굴과 몸통 부분의 구분을 뚜렷한 편이다. 몸통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으나 현재는 마모가 심해 알아보기 힘들다. 미륵의 형상을 한 1호 장승은 미륵세계를 염원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진다.

2호 장승은 높이 260㎝, 앞면 너비 50㎝의 크기이며 몸통에는 '정계대장군靜界大將軍'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사모를 쓴 문관의 모습으로, 가문에서 벼슬에 출사하는 후손이 많기를 바라는 염원의 형상화이다.

3호 장승은 높이 220㎝, 너비 50㎝의 크기이다. 1, 2호 석장승과는 달리 얼굴 조각의 형태가 없는 선돌 형태의 장승으로 앞면에 '정계대장군靜界大將軍'이라 쓰여 있고, 그 왼쪽으로 '신묘정월일辛卯正月日'이라 써 놓았다.

현재도 오미마을에서는 매년 정초에 좋은 날을 택하여 장승제를 지낸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오전 10시경에 실시하며 제의는 각 장승마다 한 명의 헌관獻官과 두 명의 집사가 맡아서 진행하는데, 3기의 장승에서 동시에 제를 올린다.

이 석장승들은 마을 공동체 신앙의 대상으로 마을의 수살막이 및 수호신인 장승으로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 또한 그 모양이 미륵형, 문관석형, 선돌형의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계승 집단의 다양한 염원을 보여주며 불교·유교·민속 등이 합쳐진 종합적 장승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상희



1호 석장승



2호 석장승



3호 석장승('정계대장군', '신묘정월일' 명문)



2호 석장승 3D 스캔



3호 석장승 3D 스캔

The Stone Guardian Posts located by the stream in front of Omi Village in Masong-ri, Wonnam-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are three stone totem poles that were erect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1392~1910).

These stone guardian posts have a value as folk cultural property suggestive of both Buddhism and Confucianism since the locals regard them as not only village guardians but also objects of faith.

음성 팔성리 고가

陰城 八聖里 古家

Historic House in Palseong-ri, Eumseong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호
수 량 1동
지정일 1985. 12. 28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길 82번길 13
소유자 홍복양로원
시 대 일제강점기

음성 팔성리 고가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팔성리에 위치한 1930년경의 전통가옥이다.

말마리 뒷산을 배산하여 동향하여 계면부에 자리하고 있다. 가옥이 지어질 당시에는 녹지로 조성된 넓은 대지에 건립된 안채와 사랑채 등이 갖추어져 있는 중부 내륙지방의 격식을 갖춘 가옥이었다. 현재는 ㄱ자형의 안채만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안채의 평면은 중부지역의 내륙지방형식과 같이 부엌, 아랫안방, 웃안방, 웃방 꺾어져서 대청, 건넌방, 머리방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형식과 다르게 겹집형태로 구성되고 기능에 따라 세분되고 있다. 안방과 웃방에는 모두 골방을 부가하고 안방 앞에는 툇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건넌방은 전퇴前退에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하부는 함실부엌으로 사용하고 있다. 머릿방은 앞쪽에 두고 후면은 작은 대청을 두어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머릿방에는 정면에서 측면으로 돌아가며 쪽마루를 설치하였고, 안방에는 벽장과 다락을 설치하고 있다. 부엌은 네 칸 정도이지만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서 뜰아랫광을 설치하고 두 칸에는 다락을 만들면서 벽장 하부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부엌의 규모로 보아 부농주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청은 긴보5량가이지만 대청에 면하는 구성은 2고주5량가로 구성하여 전퇴와 후퇴後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사다리꼴 초석을 놓고 네모기둥을 세우고 있다. 장혀 받친 도리와 보아지 받친 보를 결구하여 뺄목으로 처리하고 대들보 위에 동자주를 설치한 후, 종보와 중도리를 결구하여 보를 뺄목으로 하고 종보 위에 사다리꼴대공을 놓고 뜬장혀 위에 소로를 놓고 장혀 받친 종도리를 올리고 있다. 가구는 납도리 2고주5량가이고 대청은 긴보5량가이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음성 팔성리 고가는 주거형식을 겹집형태로 구성하고 기능에 따라 세분되고 연결되는 개량식의 구조가 반영되고 있으며 수직적인 비례가 커지면서 상하 공간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세부에서는 기둥과 대들보가 만나는 곳, 대청 종보 위의 파련대공波蓮臺工, 뜬장혀 하부 등에 횡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로가 있는 보아지를 설치하는데 인동문忍冬紋으로 초각된 장식이 화려하다.

음성 팔성리 고가는 1930년대 중부지방 음성지역의 전통주거양식이 지어질 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개량식의 구조가 반영되어 변형된 공간구성과 비례, 그리고 세부수법 등에서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This traditional Korean house built in 1930 in Palseong-ri, Saenggeuk-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is an important material that shows how traditional houses in this part of the country changed. It follows the architectural patterns of the Joseon period overall, but represents an improvement on the traditional pattern in terms of its spatial composition and proportions and the detailed techniques.



음성 태교사

陰城 泰喬祠

Taegyosa Hall, Eumseong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7호
수 량 일원
지정일 1987. 03. 31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399번길 316
소유자 신안주씨 종중
시 대 조선시대



음성 태교사는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에 있는 주자朱子의 영정을 봉안하고 교육하던 곳이다.

1744년(영조 20)에 주응동朱應東이 여말선초의 문신 김여지(金汝知, 1370~1425)가 명明에서 가져온 주자의 영정을 경기도 안성의 김용金鏞으로부터 기증받아 문중에서 문곡서원文谷書院을 창건하였다고 한다.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가 1893년(고종 30)에 제단을 복원하여 향제를 올리고 1906년에 재건하면서 이름을 태교사라고 하였다.



강당



사당

태교사는 주자의 영정을 봉안하고 제사지내는 제향공간과, 학생들을 강학하고 거처하며 공부하던 강학공간으로 이루어진다. 태교사는 앞쪽의 강당을 중심으로 동재東齋가 있는 강학공간을 배치하고 뒤쪽의 사당을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을 따르고 있다. 강학공간은 강당이 뒤에 있고 안마당을 두고 동재를 배치한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하고 있다. 서쪽에는 ㄱ자 형식의 고직사庫直舍가 자리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전퇴에 열주列柱를 그대로 노출하고 1칸은 통칸으로 쪽마루를 깔고 있다. 구조는 지형에 따라 자연석기단을 조성하고 전면에는 삼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높은 2단으로 된 팔각초석을 놓아 외진주外陣柱는 두리기둥을 세우고 안쪽은 네모기둥으로 되어 있다. 기둥머리는 창방뺄목으로 결구하고 그 위에 소로를 3기 놓고 장혀 받친 도리와 보를 뺄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내부는 통칸으로 장마루를 깔고 감실을 만들어 주자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강당은 정면 4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2칸은 대청이고 양쪽에 방 1칸씩을 배치하고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대청은 긴보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동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방, 방, 부엌으로 구성되고 2칸의 방 앞에 길게 쪽마루가 부설되어 있다. 가구는 납도리3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이다. 고직사는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ㄱ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동쪽부터 부엌, 안방, 웃방 꺾어져서 대청, 건넌방으로 되어있다. 건넌방 앞에는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함실부엌이 마련되어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우진각지붕이다.

태교사는 주자의 영정을 제향하고 교육하던 곳으로 매년 봄과 가을에 춘추향제春秋享祭를 올렸으나 최근에는 주희의 생일인 음력 9월 15일에만 향제를 지내고 있다. 특징적인 부분은 없지만 좋은 경관과 더불어 지역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

Taegyosa Hall in Jochon-ri, Wonnam-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was also built to keep the portrait of Zhu Xi, a Confucian scholar of Song Dynasty China. It shows local fea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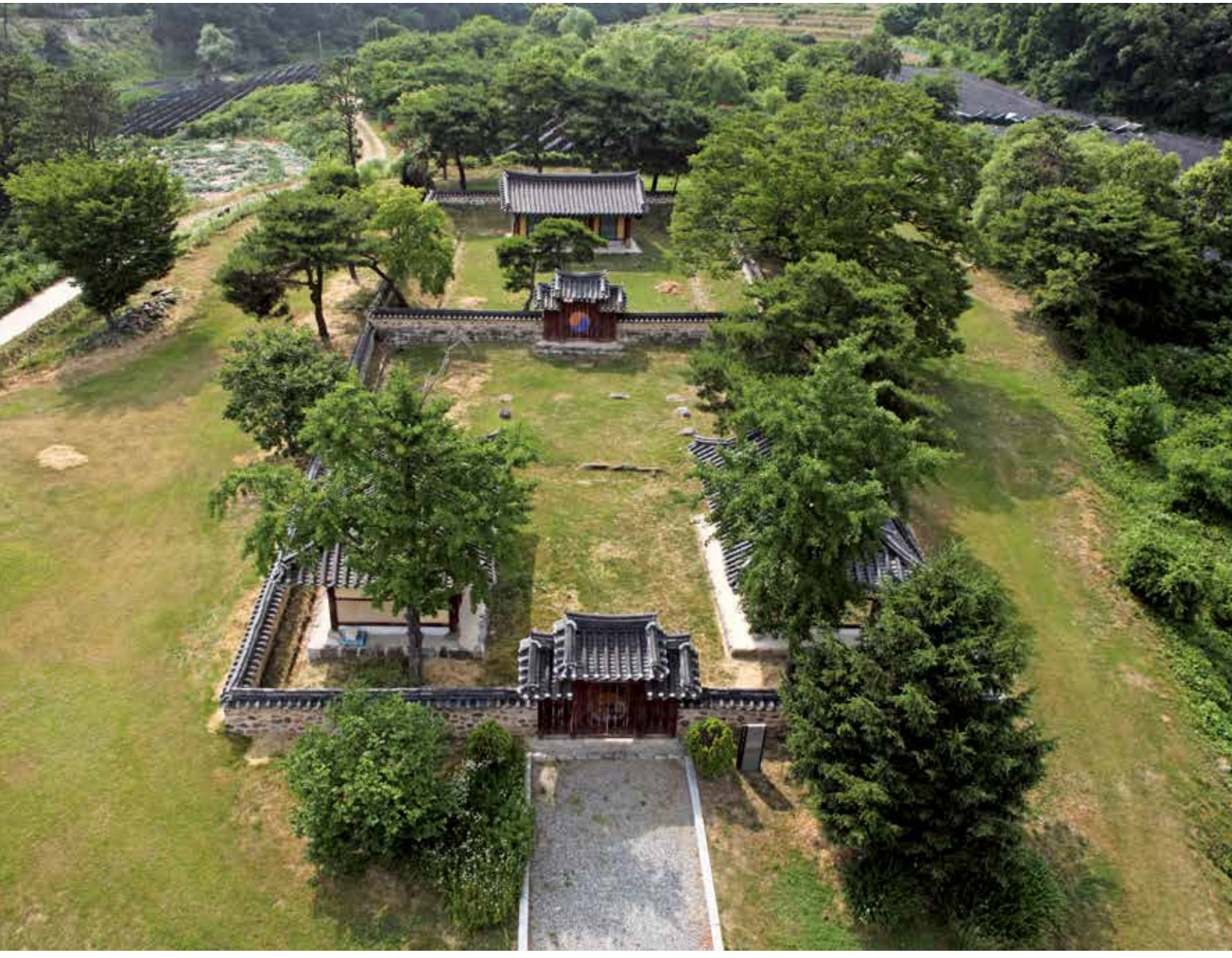
음성 운곡서원

陰城 雲谷書院

Ungokseowon Confucian Academy, Eumseong

문화재자료

종 목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11호
수 량 1동
지정일 1990. 12. 14
소재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365번길 22
소유자 운곡서원
시 대 조선시대



음성 운곡서원은 선현에 제사지내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림士林에서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서원은 백운서당으로 내려오던 것을 1602년(선조 35)에 충주목사 정구(鄭逑, 1543~1620)가 주자朱子를 모시고 백운서원으로 창건하였다. 1661년(현종 2)에 정구를 추가 배향하면서 운곡서원이라고 하였다. 1676년(숙종 2)에 나라에서 현판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고 주자의 영정을 받았다. 1871년(고종 8)에 서원철폐령으로 철폐되었다가 1894년(고종 31)에 서원을 재건하였으며, 다음 해 주자의 옛 영정을 가져와 봉안하였다. 1963년에 중수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사당, 동재, 서재, 내삼문, 외삼문 등이 있다.

운곡서원은 앞쪽에 강학공간을 배치하고 뒤쪽에 제향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 형식을 따르고 있다. 강학공간은 강당을 뒤에 두고 앞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가 배치된 전재후당前齋後堂의 배치를 하고 있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구조는 자연석기단 위에 전면과 후면은 높은 원형초석을, 나머지는 자연석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우고 있다. 주두 하부에 공포는 초익공식이고 창방 위에 소로 4기를 놓고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이며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가운데 칸이 넓어 가운데 칸에 사분합문과 협칸에 쌍여닫이문을 설치하고 가운데 칸에 운곡서원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다.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고, 제품祭品은 8변籩 8두豆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결하고 소박하게 처리한 지역적인 건축양식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이 기숙하고 공부하는 곳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一자형 목조기와집이다. 평면은 방, 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고 방 앞에 전퇴를 설치하고 있다. 가구는 1고주5량가이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운곡서원은 크지 않은 규모이지만 좋은 자리에 간결하고 소박하게 처리한 지역적인 건축양식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손태진

Located in Yongseong-ri, Samseong-myeon, Eumseong-gun, Chungcheongbuk-do, Ungokseowon Confucian Academy is a private school that also served as a place for holding sacrificial rites for ancestors. The shrine is situated behind the lecture hall, which is flanked by the Dongjae and Seojae dormitories, with a courtyard in the center. The shrine displays the characteristically plain and simple architectural features of the area.

동재



사당





Overview of Chungcheongbuk-do Cultural Heritage